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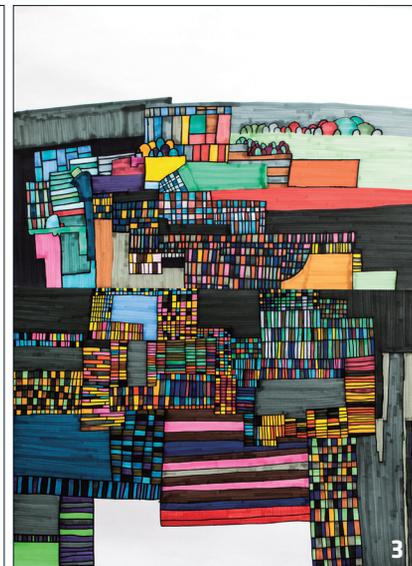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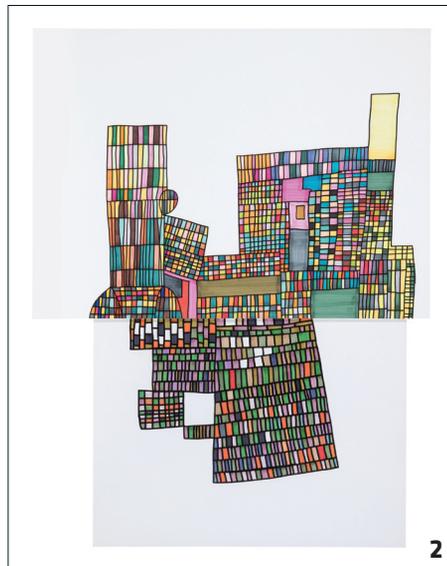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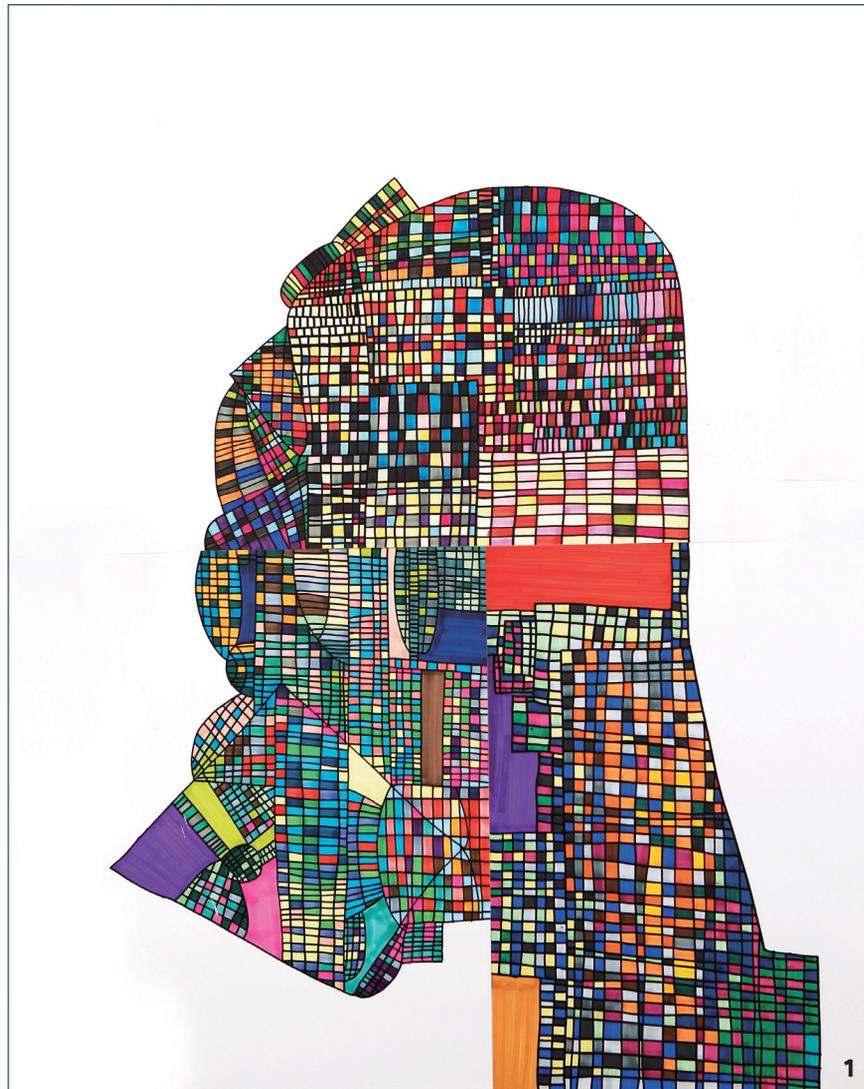
12  
2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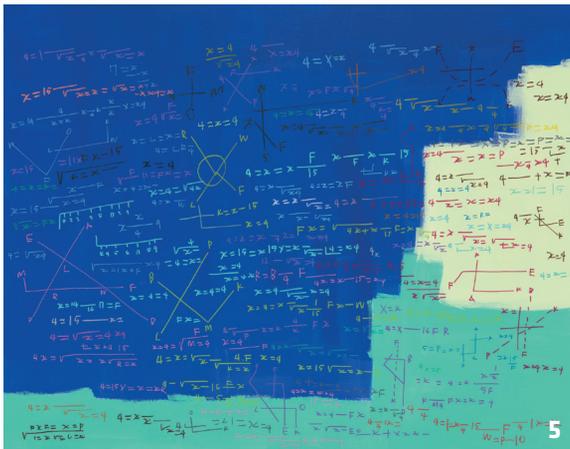


이달의 표지 작가  
**김현우**



2017년 서울문화재단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작가. 2011년 한일교류 미술전 <사이: 경계를 넘어선 예술>을 시작으로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여름캠프 <불확실한 학교>에 참여했고, 같은 해 강남구 소재 학교를 방문하여 공공 예술나눔 프로젝트 '찾아가는 미술관'을 진행했다. 2017년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선정되어 첫 개인전 <빛으로 펼쳐진 긍정색감>(리서울 갤러리)을 열었고 일본 나라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아트전 <이미지와 Spirituality>에 초대되는 등 30여 차례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매일 8시간 이상 작업에 몰두하며 파편과도 같은 픽셀의 조합과 회화적 이야기를 통해 독특한 조형적 드로잉 세계를 펼쳐고 있다.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삼청동 세움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초대전 <픽셀의 언어>를 개최한다.





- 1 <농담하는 픽셀> marker on paper | 110×79cm | 2017
- 2 <픽셀의 문> marker on paper | 88×74cm | 2017
- 3 <밤의 픽셀> marker on paper | 110×79cm | 2017
- 4 <가족그래프> acrylic, marker on paper | 79×55cm | 2016
- 5 <바다 공전 수학드로잉> acrylic, posca on canvas | 116.7×91cm | 2018

**표지 작품**

<북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marker on paper | 각 13.5×19.5cm, 가변크기 | 2016

작가는 학창 시절 수업 시간 내내 무언가를 노트에 끄적거렸다. 수학 시간에는 숫자와 좌표와 도형을 그렸고 알 수 없는 공식들을 끝없이 만들어 기록했으며, 음악 시간에는 수많은 음표를 그렸다. 이러한 낙서와도 같은 독특한 적음 방식으로 그만의 낯것의 목록을 노트 수백 권에 비밀스럽게 남겼다.

졸업 이후 그 먼지 쌓인 노트의 세계는 점차 도화지와 캔버스로 옮겨갔다. 스스로 이름 붙인 '드로잉 폭발'이라는 주제로, 거실과 벽 등 한 공간을 뿅뿅이 채울 만큼 드로잉에 열중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빌딩, 나무, 도시는 실재가 아닌 작가만의 조형미로 새롭게 구성된 장면으로, 사람들에게 다채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또 같은 공간에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름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고, 작가만의 기준으로 새로운 관계와 조직을 편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기록하는 작업도 매일 하고 있다. 이렇듯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공간적 이미지와 인간관계를 소환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자신만의 드로잉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그 세계는 그가 명명한 픽셀이라는 이미지로 끝없이 반복되고 쌓인다. 쌓인 픽셀의 층위는 또 다른 작업물과 우연히 겹치거나 만나 새로운 구조와 이미지로 진화한다. 과감한 드로잉 속에 채워지는 픽셀의 구조와 다채로운 색감에 대한 탐구는 무한한 표현의 확장과 끊임없는 실험으로서 작가에게 삶과 예술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표지 작품 <북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작가가 2016년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불확실한 학교> 워크숍에 참여하는 동안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그린 것이다. 작가는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이자 감사함이라고 말하며 매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 공간에서 만나는 기억을 자신만의 작업으로 기록한다.

작가는 색을 선택하거나 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 직관적이며 거침없다. 종이 위에 쌓이는 픽셀의 응집된 이미지는 그만의 리듬과 색감으로 예술적 성장의 개념을 함축한다. 최근에는 낭독과 녹음작업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상적이고 다양한 소재와 픽셀작업을 접목하고 확장하는 조형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글 김성원 김현우 작가 어머니

# CONTENTS

2018.8  
vol.138

한 장의  
사진



우리 아이와 내가 예술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까? 엄마와 아이, 그리고 예술가교사(TA)가 함께하는 시간, 예술로 부모플러스 <아트, 맘을 두드린다>입니다. 몸으로 표현하기, 일상의 물건을 낯설게 보기, 함께 만들기 등 다양한 예술체험을 통해 엄마와 아이는 잠재되어 있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견합니다. 그뿐인가요? 아이가 엄마의 고민을 듣고 답해주는 '행복한 고민상담소' 같은 역할 바꾸기 놀이는 예상하지 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일상에서 한 발 떨어져 예술을 체험하며 오롯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집중하는 시간.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_ 32~37쪽 '진실 혹은 대담'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한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방유경,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만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조현우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ul  
발행일 2018년 7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01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김현우
-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마지막 더다이즘

### 테마 토크

#### 여가 문화로 일상을 '버닝'하다

- 08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정부의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저녁 있는 삶을 위하여
- 10 변화하는 라이프 트렌드 '공유' 혹은 '혼자' 즐기는 여가 문화
- 14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문화예술계 지각변동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퇴근 후 일상
- 18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 들여다보기 서울시민의 생활문화시대

### 사람과 사람

- 22 문화인 번역가 정영목
- 28 작가의 방 정희우 작가 · 박영콜 현대무용가 · 정형일 발레 연출가 · 권용주 작가
- 32 진실 혹은 대담 2018년 예술로 부모플러스 <아트, 맘을 두드리다> 참여자 좌담회
- 38 예술가의 밥그릇 증명사진 전문 스튜디오 '시현하다' 김시현 작가

- 40 서울 찰나

### 이슈 & 토픽

- 42 쟁점 1 '미술창작 대가기준'을 둘러싼 우려
- 44 쟁점 2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 46 화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 프로젝트>

### 공간, 공감

- 50 공간 1 역사책방
- 52 공간 2 엘리펀트스페이스
- 54 공감 1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와 <웃는 남자>
- 56 공감 2 전시 <민화, 현대를 만나다: 조선시대 꽃그림>과 <플랫랜드 Flatland>
- 58 공감 3 책 <역사의 역사>와 <역사가들>
- 60 공감 4 영화 <어느 가족>과 <박화영>

- 62 예술적 상담소

### Soul of Seoul

- 64 메모리 인 서울 우리 곁의 한강
- 66 서울 단상 장세이 작가의 가회동
- 68 고재열의 썬(說) '중국몽'(中國夢)과 중국'명'
- 70 최은규의 음악 정원으로 린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와 드뷔시의 <바다>
- 72 서울 건축 읽기 건축가 이광노를 기리며
- 74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장 마크 발레 감독의 <와일드>

- 76 8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마지막 더다이즘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별을 이야기하려니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제목 몇 개가 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그중 하나가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던 1977년만 해도 문학잡지 몇 권은 가방 속에 넣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그해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실린 윤희길의 중편소설입니다. (검색해보니 “산업화, 도시화의 그늘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과 소시민의 허위인식을 날카롭게 포착한 문제작”이라고 나옵니다.)

일곱 번째 직장을 마무리하며 이상하게도 이 소설 제목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일곱 번의 직장을 가졌다는 건 직장동료들과 일곱 번의 이별을 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나는 일곱 번의 직장생활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남겼나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옛날 노래 하나도 입에서 맴돕니다. 제목은 <이별의 종착역>(손석우 작사·작곡)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이 나그네 길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착역.”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별하는 역은 종착역이기도 하지만 출발역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 역에서 상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별의 아픔은 역시 슬픔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이별 앞에 흔들리는 저를 ‘휩싸고 돕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감정의 물살은 마침내 ‘가족과 사랑에 대한 따뜻한 성찰을 보여

주는 작가 노희경의 대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까지 이릅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희생한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린 작품”이지만 “이별의 순간, 그날 이후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이 작품의 진짜 주제입니다. 1996년 MBC 창사 특집 드라마로 시작하여 2011년에는 영화로도 개봉되었습니다. 연극으로 무대에 올랐는가 하면 tvN에서 드라마로 리메이크하기도 했으니 명작의 힘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수필 한 자락도 떠오릅니다. 제가 졸업반 때 모교에 교생실습 나가서 가르쳤던 이양하의 <신록예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 시간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놓은 듯이 옷을 훌훌 떨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은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만, 오고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하여 주고, 또 나 자신도 하루 동안에 가장 기쁜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한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저는 ‘자리’와 ‘자유’에 대해서 숙고해봅니다. 사람에게겐 머물러야 할 ‘자리’도 중요하지만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소중합니다. 자유가 제한된 자리보다는 자리 없는 무한의 자유가 그리울 때, 그때가 이별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일곱 번째 직장에 머무른 기간이 딱 700일입니다. 누군가는 고작 700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기



에 그 700일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700이라는 숫자를 헤아려보다가 문득 MBC가 1996년 12월에 창사 특집으로 방송한 다큐멘터리 <700년 전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700년 전쯤 신안 앞바다에 침몰한 해상무역선인 신안 유물선을 복원하여 그때의 바닷길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항해 형식을 취한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침몰한 배와 그 속의 보물은 바닷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번 일터에서 만난 가족들도 깊이깊은 심연의 기억 속에서 영원한 보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떠나는가.” 공간을 떠나는 것이지 인간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곁을 떠나는 것이지 그대의 속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눈앞을 떠나 그대의 마음속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님의 침묵> 중에서) 함께한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쩔 도리 없이 마지막 단어는 ‘사랑’으로 맺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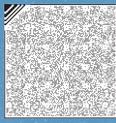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_ 유지환 <행복>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 여기 문화로 일상을 '버닝'하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등의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일과 삶, 여가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 친목 도모를 위한 여가 모임이 주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취향을 공유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 많아졌으며,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혼자 여가를 즐기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등 국민의 여가 문화 활성화와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또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8월호 ‘테마 토크’에서는 최근의 라이프 트렌트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여가 문화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 시간 감소가 문화예술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보다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이 가능할지 생각해보고, 예술 활동이 일상이 되는 생활문화를 다시금 주목한다.



그림 최지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정부의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 저녁 있는 삶을 위하여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국민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시간 감소와 함께 삶의 여유를 되찾으려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또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내가 원하는 여가 활동, 어떻게 해야 할까?**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주당 52시간 근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이 현행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 일한다면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이미 2004년 7월 1일부터 법정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노동 시간이 긴 한국사회에서 최대 근무 시간을 정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많은 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해 정시 퇴근 문화가 정착될 것이며, 주말이나 휴일근무가 사라져 개인적인 여가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야근수당 등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거나, 업무량 조정이나 인력충원 없이 제도가 실시돼 오히려 근무 시간에 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생산성과 업무성고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후자의 논의는 제외하고라도, 실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저녁에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 시간 감소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흔히 ‘나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이나 문화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유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해야 하지?’라고 고민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



자료: 고용노동부

늘었다고 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가에 대한 경험은 과거부터 경험과 체험을 통해 익숙해진다. 이를 ‘여가 경력’(leisure career)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유 시간에 무엇을 스스로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유아기나 아동기, 청년기에 경험하지 못한 활동을 중·장년기나 노년기에 새로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경험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시간이 주어졌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다. 오늘부터 6시에 퇴근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 정작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주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문화센터에 등록하고, 주말을 이용해 여행



가고, 악기를 사 학원에 등록하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교육이나 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을 찾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한 경우다. 어렵게 내가 원하는 여가 활동을 찾아도,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하지?'라는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그곳에 가면 나와 같은 초급자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누구와 함께 다닐지...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예전처럼 행동하게 된다.

### 일과 여가, 균형을 이루려면

노동 시간을 제한하여 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여가 경력을 쌓기 위해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을 찾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저녁과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발표한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계획이 담겨 있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여가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가 서비스를 구현하며,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여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국민들의 여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노동 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잃어버린 삶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 시간 총량 관리와 근로자의 휴가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지역 여가공간을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수요자의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 없는 여가 서비스를 구현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질 높은 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관련 여가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여가 참여 확대와 여가 접근성 제고, 여가 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과 여가의 혁신적인 균형을 꾀하는 것이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비전이다.

글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보다 나은 삶, 일과 여가의 혁신적 균형

목표	여가 참여 확대	여가 접근성 제고	여가 서비스 혁신
지속적 여가 참여율	47.2%(18) → 55%(22)	문화활동공간 이용률	여가 서비스 일자리 창출
소비 지출액	212조(18) → 300조(22)	64.8%(18) → 70%(22)	36천 명(18) → 56천 명(22)

- 추진 방향**
-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여가 기반 구축
  - 모두의 참여가 가능한 여가 서비스 구현
  -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여가 생태계 구축



**추진 전략**

1. 여가 참여 기반 구축	1-1.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1-2.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 1-3. 일상의 '여가공간' 확대
2. 여가 접근성 개선	2-1. 수요자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확대 2-2. 장애 없는 여가 서비스 구현 2-3. 수요자 친화적 여가 공급 체계 구축
3. 여가 생태계 확대	3-1. 여가 서비스 전문인력 관리 체계 구축 3-2. 미래 여가 산업 생태계 구축

### 일과 삶의 균형의 스펙트럼

정책명	주무부처	핵심 가치	주요 내용	관련 법률
노숙과 사측의 균형	고용노동부	최소한의 권리	- 노동 시간 - 소극적 휴식권	근로기준법
일과 가족의 균형	여성가족부	모성보호	- 가족 시간 - 모성 보호, 육아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과 여가의 균형	문화체육관광부	삶의 풍요	- 자유 시간 - 적극적 여가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서 발췌

변화하는  
라이프 트렌드



# '공유' 혹은 '혼자' 즐기는 여가 문화

갑자기 생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난감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무료한 일상을 고민하는 이들이 고유의 취향을 개발하고 취미를 즐길 방법을 찾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여가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도 조금씩 '우리'보다 '나'를 위한 문화를 즐기는 발판이 마련되는 모양새다.

**'관계 모임'에서 '취향 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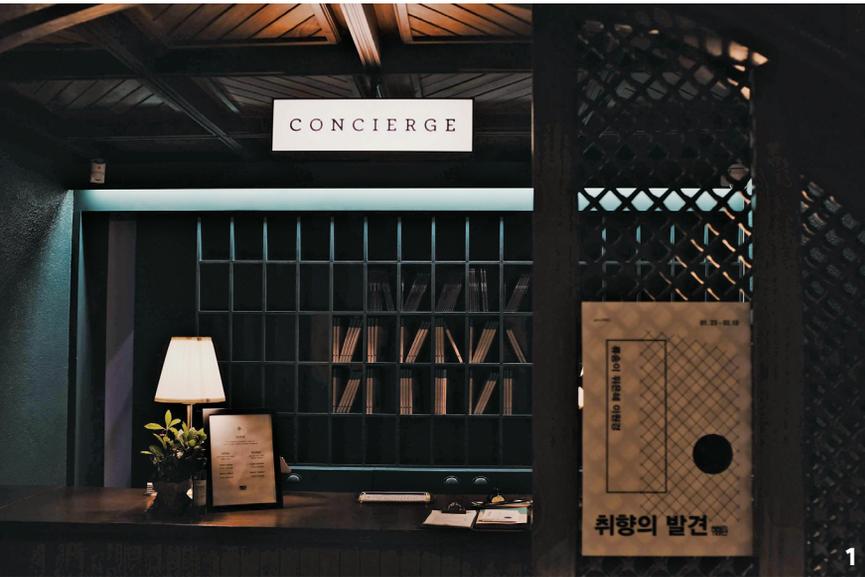
직장인 김동규 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저녁 러닝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1회당 5,000원의 참가비를 내고 일정 시간 한 장소에 모여 호스트의 주도하에 운동을 한 후 헤어진다. 회차별로 참석이 가능하며 매번 참석자도 다르다. 친목이 아니라 오직 운동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김 씨는 “불필요한 ‘치맥’ 모임이 없다”는 소개에 이끌려 참가했다”며 “지인들과 운동하려면 서로의 상황에 맞춰야 해 결국 또 다른 부담이 되는데 오로지 나만의 여가를 즐길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김 씨뿐 아니라 최근 클라이밍부터 가죽공예,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생산적으로 여가를 보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도 성장하는 추세다.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한 '프립'은 2016년 앱을 출시한 후 회원 수가 44만 명으로 늘었다. '프립'을 통해 루프탑 요가 클래스를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얼리브라운지'의 박은호 프로그램 매니저는 “스트레스로 지친 직장인에게 ‘대안이 되는 삶’을 모토로 강좌를 제공한다”며 “혼자 와도 어색하지 않도록 교류할 수 있는 라운지를 마련해 차별화했다”고 말했다.

숙박 서비스로 시작한 에어비앤비도 2016년 소설 액티비티를 연결하는 플랫폼 '에어비앤비 트립'을 출시했다. 여행자를 위한 투어 프로그램은 물론 요리, 세라믹, 공예 등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는데,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에서 약 200개가 운영 중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여가가 생기면 하고 싶은 활동으로 취미와 자기계발을 꼽은 사람이 2015년에는 34.2%였는데, 지난해에는 46.4%로 증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단체 생활이나 관계 형성에 중심을 뒀던 여가 문화가 다양한 공유 플랫폼의 등장으로 점차 개인의 취향과 기호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취향관'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교공간이다. '일상을 취향으로, 취향을 일상으로'를 모토로 내건 취향관은 예술, 사진, 책 등의 주제로 모임을 갖는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름이나 직업, 나이를 모르지만, 공통의 관심사와 '기꺼이 대화할 의사'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다.





- 1 예술, 사진, 책 등의 주제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사교공간 '취향관'.
- 2 씨네Q 신도림점의 혼영족을 위한 상영관.

### 나들이, 데이트에서 '나 홀로' 감상으로

“정시에 퇴근해 갑자기 시간이 생길 때 가끔 참여형 연극을 혼자 보러 가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주변 눈치 볼 것 없이 무대에 참여하는데 완전 짜릿해요.” 직장인 정민지 씨는 혼공·혼영족(혼자 공연·영화를 보는 관객)이다.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공연과 영화를 즐긴다는 정 씨는 시간과 취향 선택의 자유로움을 혼공·혼영족이 된 이유로 꼽았다. “서로 일하는 장소나 시간이 다르니 지인들과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상대방의 취향까지 고려하려면 더 맞추기 어렵다”며 “내 마음대로 작품을 고르고, 더 크게 웃거나 마음껏 울 수도 있는 혼영·혼공이 언제부터가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CGV리서치센터와 롯데시네마의 통계를 봐도 1인 관객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2년에는 CGV를 찾은 1인 관객이 전체의 7.7%에 불과했던 반면, 2014년 9.2%, 2016년 13.3%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7.1%에 이르렀다. 롯데시네마도 2013년 8.1%였던 1인 관객이 지난해 12.5%까지 늘어났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오페라, 무용 등 티켓 가격이 비교적 비싼 공연계에서는 혼공족의 비중이 훨씬 높다.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에 따르면 1인이 티켓 1장을 구매한 비중이 2005년 11%에서 지난해 43%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연인 간의 데이트나 가족 나들이로 영화관, 공연장을 찾는 관객이 대다

수였다면, 이제는 작품 자체를 즐기려는 1인 관객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흐름에 따라 관련 마케팅도 생겨나는 추세다. 최근 개관한 서울 영등포구 '씨네Q' 신도림점은 아예 혼영족을 위한 상영관을 마련했다. 리클라이너(전자동 각도조절) 의자 30석 규모의 프리미엄 상영관(7관)에는 좌석마다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의자의 각도를 높이면 시야에 들어오는 건 오로지 스크린뿐. 타인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휴대전화 불빛에 방해받을 일도 없다. 누군가와 함께 오더라도 영화관에서는 철저히 혼자 영화를 봐야 한다.

공연계에서도 혼공족을 겨냥한 마케팅이 종종 진행된다. 지난해 2월 <삼성카드 스테이지> 공연에는 혼공족을 위한 전용석이 마련됐다. 공연제작사 신시컴퍼니도 뮤지컬 <아이다> 공연에 1인 예매 관객에 한해 전시회 티켓 등 경품을 제공했다. 인터파크도

### 관람 인원별 관객 비중(CGV)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5월
1인	7.7%	8.1%	9.2%	10.7%	13.3%	17.1%	17.7%
2인	63.4%	61.5%	60.0%	60.2%	58.9%	57.1%	57.6%
3인 이상	28.9%	30.4%	30.8%	29.1%	27.8%	25.8%	24.7%

자료: CGV리서치센터



1, 3 얼리브라운지.  
2 얼리브라운지는 '프림'을 통해 루프탑 요가 클래스를 운영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한 공연을 여러 번 보는 '회전문 관객'과 혼공족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했다.

**저녁이 있는 삶, '혼족' 시대 열릴까?**

근무의 연장이라 여겨지던 회식, 사내 동아리 문화가 줄어들고 혼자 문화를 즐기는 '혼족'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심야 상권도 하락세다. 통계청의 통계를 봐도 지난해 주점업의 생산지수는 100.1로, 2008년 135.4와 비교해 대폭 하락했다. 반면 커피나 과일주스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같은 기간 87.2에서 135.2로 올라 두 업계의 상황이 역전됐다.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고, 불필요한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 혼족 시대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3년 커버스토리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다룬 바 있

다. <타임>은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의 눈에는 이기주의자로 보이지만,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기술을 접해 세대 기관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척자라고 진단했다. 방송사와 유튜버, 언론사와 블로거가 경쟁하고, 산업 전체를 앱 제작자가 위협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나 아랍의 봄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불안정한 시대 상황을 겪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않은 이들은 시스템과 싸우기보다 '실용적 이상주의자'를 자처한다. 이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행동가'이며 낡은 시스템이 해체되는 흐름에 적응한 신인류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화제를 모은 1989년생 바텐더 오카시오 코테즈는 밀레니얼 세대에 호소한다. 그는 기성 정치인이 "우리 동네에 살지도 않고,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내지도 않는다.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조차 공유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풀뿌리 선거운동을 했고 서민 계층의 실질적 변화를 외쳤다. 그 결과 유색인종 여성이 민주당 10선 의원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국내의 '소확행' 바람도 이 흐름과 멀지 않다. 거대한 이념에 호소하고 시스템을 바꾸려 하기보다 개인과 가족의 소박한 일상을 중요시하고 실질적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이다.



###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

업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불변지수	불변지수	불변지수	불변지수	불변지수	불변지수	불변지수	불변지수	불변지수	불변지수
주점업	135.4	127.6	120	113.9	109.5	108.7	109.7	100	101.6	100.1
비알코올 음료점업	87.2	84	82.4	85.5	89.2	92	96.8	100	121.7	135.2

자료: 통계청

#### 개별 취향에 따른 여가 문화 다양화 대비해야

이러한 개인주의의 강화는 더 이상 우려해야 할 흐름이 아니다. 롯데시네마가 2016년 하반기 개봉 영화 중 혼영족이 선호한 영화를 조사한 결과, 한국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김성우 감독의 <아수라>, 이연희 감독의 <미씽: 사라진 여자> 순이었다. <아가씨>를 제외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는 못했지만 평단에서는 호평을 받은 작품들이다. 즉 1인 관객은 상대방의 취향을 고려하는 가족, 연인 관객보다 과감한 취향 선택이 이뤄지므로, 개별 취향에 맞춰 더욱 다양한 콘텐츠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만 이런 콘텐츠를 국내 산업이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지는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CGV리서치센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봉 영화 관객 수 상위 10개 작품 중 혼영족 비율을 비교했는데,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본 <신과 함께-죄와 벌>, <택시운전사>는 8, 9위로 밀려났다. 1위는 <범죄도시>(19.5%)였지만 그다음으로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18.3%), <킹스맨: 골든 서클>(17.3%) 등 마니아층이 두터운 프랜차이즈 외화가 높은 순위에 올랐다. 국내 영화계가 여전히 개별적 마니아를 위한 영화보다는 기존 흥행 공식에 충실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 30대는 스마트폰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중·장년층이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상 50대 이상이 서울시 인구의 21.9%가량을 차지하지만,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통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2016년 설립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대 이상 세대의 재취업 및 여가를 위한 강좌를 제공한다. 또 자치구별 문화센터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한 취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2017년 7월 1일~2018년 5월 31일 박스오피스(관객 수) TOP10 작품별 1인 관객 비중

영화명	개봉일	1인 비중
범죄도시	2017-10-03	19.5%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2018-04-25	18.3%
킹스맨: 골든 서클	2017-09-27	17.3%
1987	2017-12-27	16.3%
스파이더맨: 홈 커밍	2017-07-05	16.1%
블랙 팬서	2018-02-14	15.7%
청년경찰	2017-08-09	14.0%
신과 함께-죄와 벌	2017-12-20	13.5%
택시운전사	2017-08-02	13.5%
군함도	2017-07-26	12.1%

자료: CGV리서치센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다가올 여가 문화의 변화는 사실상 예견됐던 일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유행어가 됐고, '워라밸'이라는 단어도 생겼다. 일과 여가의 경계가 없었던 기성세대의 논리는 젊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성세대에게도 이제 제대로 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여가 문화의 흐름이 생겨나면서 문화산업은 물론 주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여가 문화가 안착되고, 산업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글 김민 동아일보 기자 · 사진 제공 얼리브라운지, NEW, 취향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문화예술계 지각변동

#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퇴근 후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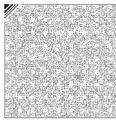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이 기존 최장 68시간에서 최장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한국사회의 직장 문화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았다. 자연스럽게 야근이나 회식은 줄어들고 퇴근 시간은 앞당겨졌다. 이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저녁이 있는 삶’이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계는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된 이후 극장 관객이 늘긴 했어요. 이거한다고 큰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관객이 늘었더라고요. 직장인 대상 프로모션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멀티플렉스 극장 관계자)

“7월 이후 넥타이를 맨 관객이 전보다 더 눈에 띄긴 해요. 하지만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이 확 늘어난 것 같진 않아요. 과연 주 52시간 근무가 관객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대학로 극단 관계자)

14년 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가 한국인에게 ‘주말’을 찾아줬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저녁’을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례를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의 획기적인 변화는 관련 산업에 커다란 기회를 제공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는 여행,





레저, 숙박, 아웃도어 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주말 이틀간 연휴가 보장되면서 도심을 떠나 1박 2일의 짧은 휴가를 떠나는 라이프스타일이 정착됐고, 캠핑용품, 아웃도어 의류 등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다.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르면 2007년 1조 5,000억 원에 불과했던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완료된 2011년 4조 원으로 성장했고, 2012년 5조 4,000억 원, 2013년 6조 9,000억 원, 2014년 7조 원을 기록했다. 주 5일 근무제가 레저, 아웃도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영화, 공연, 전시 등 문화산업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문화예술을 통한 여가 생활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5%에 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겨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문화예술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를 재도약의 기회로... 발 빠른 움직임 보이는 영화계**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는 곳은 영화계다. 영화계는 예전보다 일찍 퇴근한 직장인이 큰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 바로 영화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기대는 영화계만의 막연한 바람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대신증권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영향으로 CJ CGV가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CGV가 연합뉴스와 함께 6월 28~29일 CGV 회원(20~44세) 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객 10명 중 7명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영화관람 횟수를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의 주중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2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극장 영화관람(11%), 게임(10.4%), 극장 외 영화관람



(7.8%)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으로 여가가 늘어날 경우 주중 늘리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극장 영화관람(1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헬스(12.4%), 맛집·카페(10.3%), 드라이브(6.3%), 게임(6.1%) 등을 늘리고 싶다고 답했다.

과거 주 5일 근무제 시행 때 극장 관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례도 있다. 주 5일제가 도입된 2004년 6,825만 명이던 극장 관객은 2005년 1억 2,335만 명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물론 멀티플렉스가 급증하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극장과 관객 모두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근로 시간 단축이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서정 CJ CGV 대표는 7월 10일 CGV 강변에서 열린 '2018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최근 국내 영화상영업은 정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희망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며 "주중 관람객의 증가를 기대하며 어떻게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극장들은 평





- 1 CGV 씨네드쉐프의 '워라벨 패키지' 포스터.
- 2 CGV는 평일 저녁 관람료 할인을 제공하는 '칼퇴 적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자료 CGV)
- 3 롯데시네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관람 할인 혜택 이벤트 '직장인 소확행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자료 롯데시네마)
- 4 세종문화회관의 '한밤(야)광 패키지' 포스터. (자료 세종문화회관)



일 저녁 직장인의 발길을 붙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저녁식사와 영화관람을 연계하거나, 직장인 맞춤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CGV는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59분 사이에 시작하는 일반 2D 영화를 예매할 경우 2,000원을 할인해준다. CGV 씨네드쉐프는 '워라벨 패키지'를 출시했다. 2인 영화관람권과 각 극장 대표 세트가 마련한 세트 메뉴로 구성되며, 기존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롯데시네마도 7월 2일부터 24일까지 직장인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할인 혜택을 이벤트를 진행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59분까지 사원증을 가지고 전국 롯데시네마 직영관을 방문하면 관람료 및 콤보를 할인해줬다. 메가박스도 '소확행'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제휴 및 할인 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을 강화하기로 했다.

### 규모는 작지만... 팔 건어불인 공연·전시계

영화계와 비교하면 산업 규모는 작지만 공연계 역시 직장인 대상의 할인 프로모션을 늘리거나 공연 시간을 앞당기는 등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공연 전문회사 '연극열전'은 직장인 대상 티켓 할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공연 중인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티켓 가격은 전석 5만 원이지만 '야근 넘어 도망친 직장인 할인'을

적용받으면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실제 티켓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 7월 2~8일 직장인 대상 할인 티켓의 판매량은 전주 대비 141% 상승했다. 또 9~12일 직장인 할인 티켓 판매는 전주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극열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직장인 할인 티켓 판매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근로 시간 단축이 공연 관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분석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날인 7월 2일, 공연제작사인 신시컴퍼니는 일찍 퇴근한 직장인을 타깃으로 평일 공연에 한해 뮤지컬 <시카고>의 티켓을 50% 할인했는데, 1,000장 이상이 판매됐다. 신시컴퍼니 관계자는 "평일 공연은 원래 할인율을 적용해도 티켓 판매가 확 늘기 어려운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저녁 여가가 늘어나면서 평일 저녁 공연도 할인율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퇴근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공연 시간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현재 대부분의 평일 공연은 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후 8시에 시작되지만, 하반기부터 공연 시간을 앞당기는 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두산아트센터는 하반기 공연 예정인 연극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힘든 사람>의 시작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당기기로 했다. 사실 퇴근 시간에 맞추려면 오후 8시에 공연을 시작할 수밖에 없으나, 2시간이 넘는 공연 시간을 고려할 때 오후 8시 공연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두산아트센터는 주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스테이지 투어'를 하반기 중 직장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산아트센터 관계자는 “그간 직장인 관객은 공연 시간에 겨우 맞춰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퇴근 시간이 당겨지면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 공연 시작 전 무대 뒤의 모습까지도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계기로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패키지 문화상품을 준비한 곳도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퇴근 이후 워라벨을 위한 ‘한夜(야)광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는 세종문화회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작품관람과 광화문 인근 식사 및 숙박 등을 묶은 것이다.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의 <썸머클래식>, 서울시합창단의 <신나는 콘서트>,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오늘 하루 맑음>, 전시 <드가: 새로운 시각> 등을 식사와 숙박이 연계된 패키지로 구매할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 받는다.

미술계에서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기존 야간 개관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꾸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예고된 3월부터 금·토요일은 평소보다 3시간 늦은 오후 9시에 문을 닫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매월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야간에는 단순한 전시관람 외에도 영화, 음악 등과 연계된 행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현재 직장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행사들이 큰 호응을 얻는 만큼, 주 52시간 시대에 맞춰 앞으로 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김승욱 연합뉴스 기자 · 그림 최지예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  
들어다보기

# 서울시민의 생활문화시대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사회를 바꾸고 있다.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채울 활동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 ‘생활문화’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다가온다.

서울시는 이런 변화에 앞서 지난 2016년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예술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 예술 활동을 통해 창작자가 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생활문화란 시민이 생활에서 수행하는 자발적 예술 활동을 일컫는다. 생활체육처럼 예술 활동도 일상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생활문화를 누리는 형태로 ‘생활예술동아리’에 주목했는데, 이는 지역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는 모임이다. 이들은 문화예술의 관람자가 되기도 하지만 예술을 직접 창작하는 데 주력한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는 2017년 서울시생활문화진흥 조례를 통해 서울문화재단에 생활문화지원단을 설치했다. 이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간 생활예술동아리 네트워크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나가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는 “재단의 간접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 큰 예술 창작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생활문화지원단 사업의 목표”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사람과 공간 그리고 문화를 잇는 플랫폼**

생활문화지원단이 이끄는 생활문화사업의 기본 원칙은 첫째,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간접지원을 통해 생활예술동아리의 자발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위해 연습과 발표, 회의공간 등 공간과 네트워크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다. 셋째, 매개자 등 동아리 지원인력 양성을 통한 생활예술 활동 촉진이다. 사업은 ①생활문화 인프라 확충(place) ②문화주체로의 성장지원(people) ③문화자

원 연결 플랫폼 구축(platform)의 3대 영역으로 구성된다. 영역별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place)은 기존 시설에 생활예술 기능을 보강하거나 그동안 일반에 닫혀 있던 시설을 개방하는 방식이다. 구민회관, 노인정에서 아파트, 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유휴공간에 이르기까지 공공과 개인이 보유한 시설의 기능 재설계를 통해 동아리 및 커뮤니티 시설로 재정비한다. 구축된 공간은 주 5일 상시 개방을 유도해 지역 사회 생활문화의 실행 거점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 원년인 2017년에는 자치구 기반 생활문화지원센터(생활권형) 7개소, 기초적 프로그램 지원중심센터(디딤형) 43개소를 열었고, 2018년에는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유휴공간 10개소가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조성된다. 2017년 조성된 생활문화지원센터 50개소 중 우수 공간은 올해 연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예술매개자, 시민을 예술가로 이끈다**

둘째, 문화주체로의 성장지원(people)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해 생활예술인으로 이끌어줄 지원인력(생활예술매개자, Facilitating Artist)을 육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정 경력의 문화예술 분야와 동아리 영역 활동가 중에서 생활예술매개자(FA)를 선발해 25개 자치구와 장르예술 분야에 파견한다.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과 보다 많은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계하고 돕는다. 2017년에는 100명의 생활예술매개자들이 선발되어 25개 자치구에서 34명, 예술 장르별로 31명이 활동했다. 올해에는 70명이 선발되어 25개 자치구에서 50명, 예술 장르별로 20명이 활

- 1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2017).
- 2 '살은 예술 프로젝트'(2017).



동 중이다. 생활예술매개자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동아리가 이끄는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거버넌스25)'은 동네 구석구석에서 생활예술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사업이다. 각 자치구와 서울문화재단이 선발한 생활예술매개자와의 협업으로 숨어 있는 생활예술 동아리를 발굴하고, 동아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축제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8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1,943개의 생활예술동아리를 발굴했고, '거버넌스25'에 참여하는 동아리 네트워크인 '그루넷'에 속한 동아리는 570여 개에 이르렀다.

셋째, 문화자원 연결 플랫폼 구축은 서울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동아리 활동, 이들이 참여하는 마을축제 정보, 2017년부터 발굴 중인 25개 자치구별 동아리 현황, 동아리들의 모임과 연습·발표를 위한 장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포털 '생활문화 플랫폼(가칭)'에서 출발한다. 올해 7월에 시범공개되었다.

### 동네 예술가, 무대에 서다

생활문화지원단은 생활문화예술 축제를 통한 동아리들의 활동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적 장르 지원사업으로 5년 차에 이른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는 국내와 국제 부문으로 구성된다. 국내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내 생활예술오케스트라 40팀은 세종문화회관에서의 정기공연과 통인시장, 수성동계곡, 옛 체부동교회, 경복궁역미술관으로 이어지는 마을예술 오케스트라 축제를 이끈다. 또한 전 세계 생활예술음악인으로 구성된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SICO)는 올해 공모를 통해 32개국 53명이 선발됐다. 9월 29일경 세종문화



회관과 고궁에서 기획공연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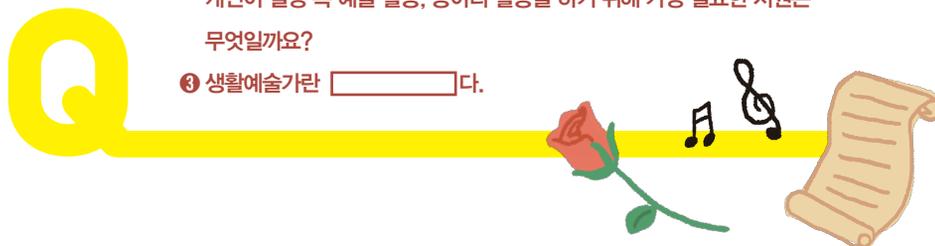
스윙, 댄스, 살사, 어반, 발레, 재즈 등 6개 장르 댄스 동아리를 대상으로 '광장의 무대'를 선사하는 '위댄스캠프'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3인 이상 활동하는 동아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네트워킹 파티, 마스터클래스, 합동연습, 연합 공연의 지원단계를 거쳐 10월 13일, 한강시민공원 물빛무대와 너른들판에서 펼쳐지는 대형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40세 이상 80세 이하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춤단체라면 '서울춤자랑'에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40개 단체 중 20개 단체가 10월 9일 여의도 KBS홀 무대에 선다.

연극, 뮤지컬, 음악, 사진·영상, 미술 장르에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동아리를 위한 '동아리네트워크' 사업도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0여 동아리들이 장르별로 모여 소공연과 전시를 기획하고, 전문가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10월 27일 성수동 S팩토리에서 열리는 '아마추어 페어'에서 기량을 발휘하고 네트워킹할 기회를 갖는다.

글 김희영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팀장 · 사진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 참여자 인터뷰

- ❶ 국민여가활성화 계획에 따라 여가 문화가 일상이 되고, 생활예술이 활성화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 ❷ 아마추어, 생활예술가, 전문예술인 등 예술가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상 속 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요?
- ❸ 생활예술가란 다.



# A



## 서병열 도봉구 생활예술활동가

도봉구 통기타 동아리 '처음처럼' / '홍밴드 춘자네'

❶ 단순히 먹고사는 일상을 벗어나 옛 추억을 생각하며, 나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갈 것입니다. 과거 대학가요제에 나가는 게 꿈이었지만 당시엔 이를 수 없었는데요, 여가 문화가 일상이 된다면 그때 배웠던 기타로 다시 연주할 수 있도록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비단 오프라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좀 더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❷ 요즘 온라인이 활성화되다 보니 사람들 모으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모여야 할지, 공간 확보가 고민입니다. 물론 회비를 받아 사실 연습실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각자의 여건과 환경이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되려면 그들이 편히 모여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악 동아리의 경우 고가의 장비 구입이 쉽지 않은데, 기본 장비가 구비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❸ 옛 추억의 실현!



## 이재연 2018 생활예술매개자

서울문화재단 홍보 생활예술매개자(FA)

❶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즐기는 수준이지만, 같이하는 밴드는 괜히 겁이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해가 지나면서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책 변화에 따라 여가 생활과 생

활예술이 활성화된다면 나의 삶이 좀 더 도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❷ 공간이나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공연장 같은 오프라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 팀에서 올해 오픈 예정인 온라인 정보 포털 '생활문화 플랫폼'(가칭)이 기대됩니다.

❸ '잘~ 노는 사람'이다. 생활예술은 내가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의 놀이처럼, 힘이 필요하거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찾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예술가란 '잘~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소나 2018 생활예술매개자

서울문화재단 동아리 발굴 생활예술매개자(FA)

❶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면, 저와 같은 취미(핸드메이드 카드)를 가진 사람들과 모여 즐기고 싶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은 캘리그라피, 북아트 등을 배워 지역 커뮤니티에 공헌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엄마로, 아내로, 생활예술매개자로 매일 바쁜 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마치 연례행사처럼 드물었던 여가 시간이 제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면 여유를 느낄 수 있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주위에도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❷ 다양한 생활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과 더불어 생활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동



아리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홍보지원 등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재단 등 기관에서 지원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③ 삶이라는 퍼즐 판을 행복하게 채우기 위한 퍼즐 한 조각이다.



### 조기호 2017 SICO 단원

유니필하모닉오케스트라

① 최근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여가 시간이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늘어난 여가 시간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아마 다른 직장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가 시간이 생겨 취미활동을 하게 된다면 본업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직장인들의 무료함, 매너리즘을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통해 더욱 생동감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고 생산성도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 촉매가 생활예술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활동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은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글로벌 언어임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촉매제로서 '생활예술'을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② 생활예술, 특히 음악은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가의 악기, 레슨비 등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레슨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음악교육을 적극 지원한다든지, 성인에게는 여가 생활에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③ 자동차의 엔진. 자동차를 일상생활에 비유한다면, 생활예술가는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동력을 만들어줍니다. 생활예술가 스스로의 삶도, 또 생활예술을 즐기는 시민들의 삶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조성주 송파구 생활예술활동가

송파구 '파크 앙상블'

① 저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클래식 기타 연주 등 취미활동을 하며 생활예술을 실천해왔습니다. 쳇바퀴 같은 일상을 벗어

나 삶의 여유를 느끼고자 클래식 기타를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나이,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생활예술이 제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② 다행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파크 앙상블'은 아파트 단지 내에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클래식 기타의 특성상 음량이 작아 야외 공연 시 음향지원이 필수입니다. 요즘 개인 음향시설이 있다고는 하나 고가라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아리를 위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③ 생활예술가란 마을의 활력소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기적으로, 공연과 작품을 통해 이웃에게 삶의 긍정 에너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 최미나 중랑구 생활예술활동가

중랑구 여성중창단 동아리 '아힐'

① 생활문화 활성화란 막연한 생각과 계획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싶고 해보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어 꿈처럼 생각하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취미활동을 쉽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품었던 막연한 욕구를 실현하며 TV 시청으로만 보냈던 여가 시간을 조금 더 다채로운 색깔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②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감을 갖고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면서 활동해야 한다면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테니까요. 함께 모일 곳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다음에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지정된 공간의 유무는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이나 안전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③ 피톤치드, 저는 항상 생활예술가가 내뿜는 생기를 느낍니다. 예술가마다 생기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생활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큼은 동일하지 않을까요? 생활예술가야말로 우리 생활을 정화해주고 상쾌하게 하는 피톤치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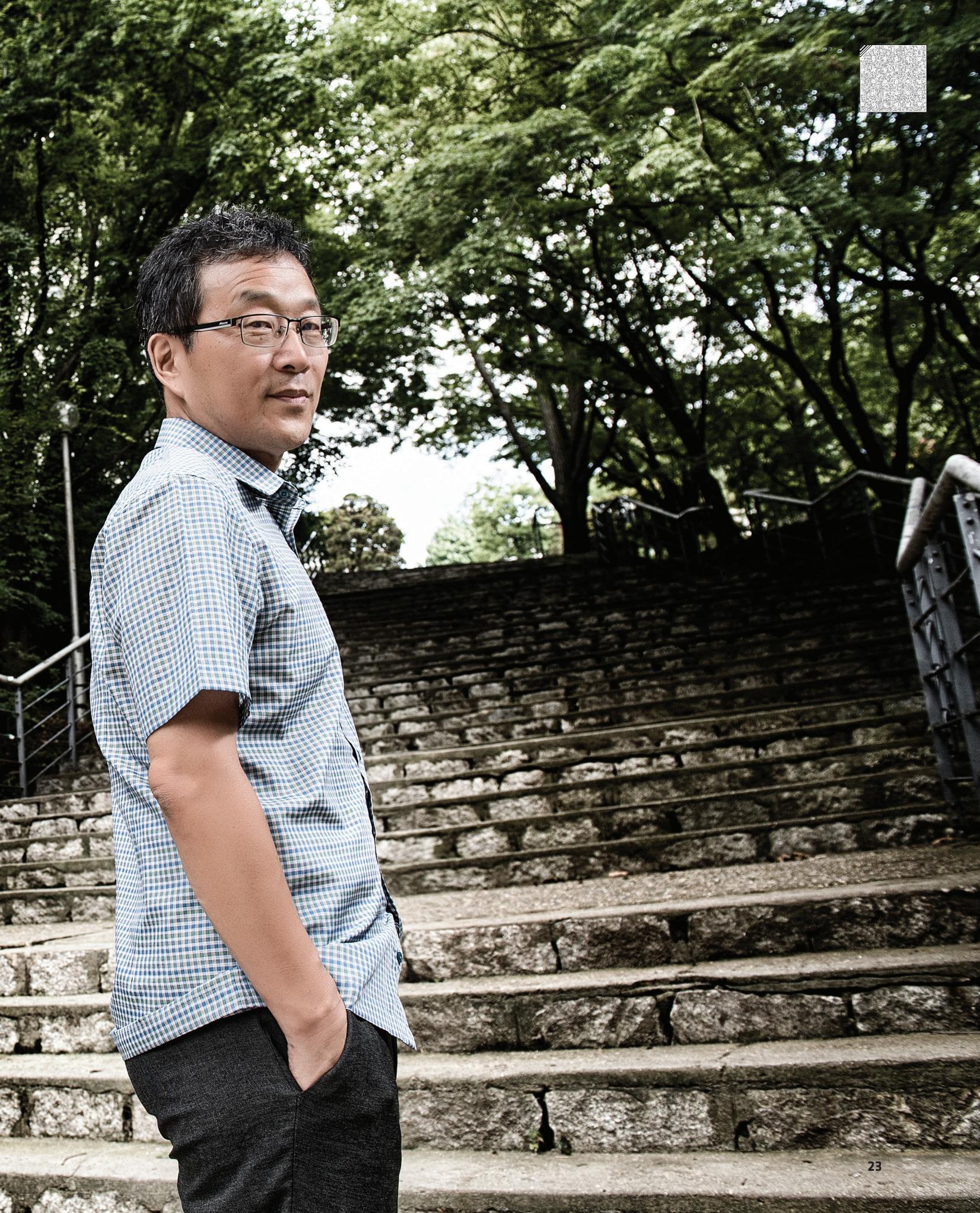
정리 오인경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팀

번역가 정영목

# 좋은 번역은

# 숨겨진 빙산까지 보여준다

‘번역’이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렇게 정의한다.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좋은 번역’이란 무엇일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정영목 번역가(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번역학과 교수)는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해줄 만한 이다. 얼마 전 타계한 미국 현대문학가 필립 로스를 비롯해 조제 사라마구, 커트 보니거트, 코맥 매카시, 존 업다이크, 알랭 드 보통 등 빼어난 작가의 소설이 그의 손을 거쳤다. 그는 또 피터 게이의 〈프로이트〉, 앤 패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 마사 누스바움의 〈인간성 수업〉 등 비문학 서적도 상당수 번역했다. 원어민이 읽어도 수월하지 않을 작품을 그는 다른 언어의 글로 오롯이 옮긴다. 1991년부터 27년 동안 이렇게 번역한 책이 200권을 넘는다. 번역만 했던 그가 최근 책 2권을 냈다. 그동안 발표한 번역론을 모은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와 소설을 번역하고자 쓴 칼럼을 묶은 〈소설이 국경을 건너는 방법〉이다.



책을 출간한 6월을 기점으로 여러 인터뷰가 나왔지만, '좋은 번역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답에는 적절히 이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 정영목 번역가를 만났다. 남의 말을 옮긴다는 의미에서 인터뷰도 번역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그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더 잘 번역하고자, 기자로서 의견을 넣어 서술하지 않고 질문하고 답을 받는 형태로 글을 신는다.

1991년부터였죠. 번역 일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도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과외와 번역이 있더라고요. 과외는 그다지 재미없었어요. 번역은 나름 재미있었고요.

번역의 재미라는 게 어떤 건가요?

번역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원문을 이해하는 재미라 생각합니다.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깨닫는 재미라 할 수 있습니다. 글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글 속의 작은 글들의 관계가 눈에 보여요. 글의 의미를 바꿀 우리말을 고르는 일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번역을 하려면 글을 아주 자세하게 읽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번역을 시작하면 독서라는 취미를 잃게 된다”고 농담하곤 합니다. 자꾸 분석하고 따져야 하잖아요. 정보 없이 영화를 보는 일과 비교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하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화의 제작자나 스태프라면 또 다르겠죠. 번역을 하다 보면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을 걷다가 ‘아! 지난번 번역하다 막힌 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뇌의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느낌이랄까. 지금은 괴로워도 나이가 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려나요? (웃음)

번역은 1년에 몇 권쯤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1년에 평균 3~4권 정도 합니다. 책의 분량이나 난도에 따라 다릅니다. 교수가 되고도 예전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만큼은 하고 있어요.

번역가로서 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가요?

번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은 번역이 본업이라 생각합니다. 전업으로 번역 일을 하다 2011년부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통번역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여전히 번역이 제 생활을 지배합니다. 번역할 시간이 줄었지만, 매년 3~4권 정도는 작업하게 되더군요. 그나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번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통번역대학원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연구 쪽이 아니라 실무 쪽을 많이 가르칩니다. 일정 부분을 번역하도록 한 뒤 학생들이 서로 돌려보고 토론하게끔 합니다.

번역 수업에 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요?

학생들은 지금보다 나아지는 데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객관적으로 봐야겠죠. 글쓰는 사람들도 ‘나중에 목혀놓고 보라고 하잖아요. 거리를 두고 보라는 의미겠죠. 같은 텍스트를 번역했는데, 남은 어떻게 번역하고 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토론하는 겁니다. 이게 번역 실력을 가장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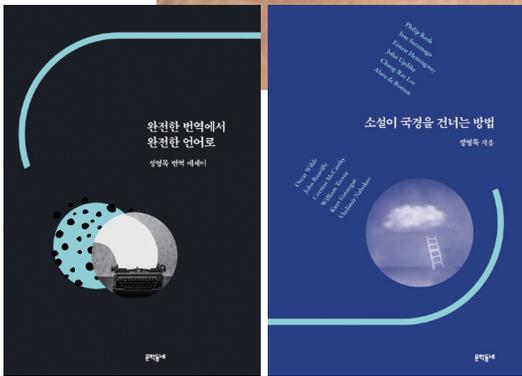
번역 작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집에서도 하고 출판사 인근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들과 사무실을 얻어 함께하기도 했죠. 번역하는 친구들은 아니었고요. 그냥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는 식으로요. 저는 번역을 할 때 혼자서 막 골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수가 되고 나서는 연구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일이 잦습니다.

소설을 많이 번역하셨는데, 작가에 관해 공부를 따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초벌 번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관련 정보를 배제하고 봅니다. 원서 한 권이 지닌 완결된 범위에서 우선 일합니다. 원서의 테두리 안에서, 죽어라고 파고듭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가 누구며, 어떤 생을 살았고, 다른 이가 작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가급적 보지 않습니다. 특히 작가에 관한 평가는 의도적으로 아예 피합니다.

배경지식이 풍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정영목 번역가가 번역한 책들과 최근 출간한 2권의 책.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등에 있는 흉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실패한 번역이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 어디가 좀 이쁜 거 아닐까?’ 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할까요. (웃음)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번역은 발가벗고 작가와 목욕탕에서 만나는 일’이라고. (웃음) 그런데 이게 뜻밖에 재밌습니다. 작품 내부에서 번역가와 작가가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셈인데, 완결성이 있는 작품을 만나면 정말 재밌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 관해 편견이나 오해가 있으면 제대로 마주하기 어렵잖아요. 예컨대 헤밍웨이는 일반적으로 마초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 삶도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직접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보니 너무 달랐습니다. 몇몇 작품은 굉장히 섬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입견이 너무 강하면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번역하는 이들이 이 단계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리면 실패하기도 하죠.

#### 초벌 번역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습니까?

교정을 보거나 출판사에서 함께 살펴볼 때는 주변 정보도 보는 편입니다. 번역 이후 흥미가 생겨 스스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예컨대 필립 로스는 번역 이후 관심이 생겨 그의 전기도 찾아 읽었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 작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마련이니까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번역 실력이 나아지죠.

#### 번역 작업이 가장 힘들었던 작가는 누구였나요?

존 업다이크예요. 그의 토끼 4부작에서 1부를 번역할 때 정말이지 작품과 ‘씨름’을 했어요. 산맥을 봐야 하는데, 산 하나만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니다. 완전한 모습을 보지 못했고, 작가의 의도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존 업다이크는 긴 세월 동안 자기 변모를 많이 겪은 작가이기도 하죠. 1부를 번역할 당시 2~4부가 나오지 않은 터여서 결국 1부를 번역하고는 ‘작가의 생각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한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4부까지 모두 번역한 다음 다시 1부를 번역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존 업다이크는 <달라라, 토끼>(1960)로 시작해 <돌아온 토끼>(1971), <토끼는 부자다>(1981), <토끼 잠들다>(1990)를 냈다. 그는 토끼 4부작으로 20세기 후반 미국 중산층의 삶을 그렸다. ‘토끼’는 주인공 해리 앵스트롬의 애칭이자 별명이다.)

#### 그 정도로 어려웠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번역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냥 영어를 한글로 바꾸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말은 촘촘하지 않고 성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자님을 만나고 나서 제 친구



3명에게 설명해줄 때 '얼굴이 둥그렇고 안경을 쓰고 있고 코와 입은 어떤 모양이더라'고 알려준다 한들, 3명 모두 똑같은 사람을 떠올리진 않겠죠. 번역가는 이런 틈새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번역의 승부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좋은 번역이란 어떤 것인가요?

번역은 빙산을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부는 위에 솟아 있지만, 아래는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말로 빙산을 보여줘야 하는데, 가장 풍부한 언어로 밑바닥까지 모두 긁어 보여줘야 합니다. 언어의 표현은 쉽게 말해 녹차 티백과도 같습니다. 투명한 물에 티백이 들어가면 녹색의 물로 바뀌죠. 그 녹색을 열게 할 수도, 짙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번역가의 능력에 따라 결과물도 달라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번역가가 작품을 이해한 만큼 번역 결과도 맞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뜻의 단어만으로는 아무리 모아봐도 빙산을 제대로 보여주지 어렵습니다. 원서의 텍스트에는 사실 많은 정보가 함축돼 있습니다. 같은 번역을 하더라도 단어의 의미 자체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원서에 있지도 않은 말

을 번역가가 덧붙여 설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어는 의미를 뜻하는 '코어'도 있지만, 의미의 다양함을 뜻하는 '범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작가가 '파란색'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도대체 어떤 파란색이냐는 겁니다. 그냥 '파랗다'고 옮기면 어떤 파랑입니까? 여기에 번역가의 아이디어가 담겨야 합니다. 또 이 단어를 원서의 맥락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작가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까지 담아내는 번역이 정말 좋은 번역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반대로 나쁜 번역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단어의 뜻 자체를 틀리는 거죠. 원래 글은 읽다 보면 틀려도 말이 되는 거 같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출판사에서 원고를 다시 보는데도 못 잡아내는 사례도 있잖아요. 소설은 배경에 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데서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번역의 가독성을 두고 논란이 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가독성만 중시한 번역은 이발소에 걸린 그림과 같다”고 평가했다.)**

원서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책은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쉬운 책은 가독성이 좋은 편이죠.



그렇다고 어려운 책이 나쁘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번역을 잘해서 쉽게 책장이 넘어가는 책도 있고요. 가독성이 좋은 번역의 기준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의 자연스러움을 잘 살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만 쓰는 일도 오히려 퇴행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가 새로운 문장을 썼는데, 번역가가 읽기 편한 것으로 고쳐버리는 일은 옳지 않죠.

**번역가가 작가의 새로운 시도를 잘 파악해야겠네요.**

이질적인 것이 있다고, 무언가가 튀어나왔다고 대패로 밀어 매끄럽게 만드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작가가 새로운 것을 보여 주려 했고 애써 살렸더니 '번역투'라고 매도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차피 번역은 다른 나라 말을 우리말로 바꾸는 겁니다. 언어가 서로 부딪히면 이질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가는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고민해야죠. 작가가 실험정신을 가지고 쓴 표현을 익숙한 우리 언어로 무작정 바꿔버리려면 번역을 뭐하러 합니까?

이번에 낸 책에도 그런 주장을 하셨죠. (책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에는 "외국어가 영키는 현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언어는 계속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의 충돌입니다. 다른 나라 말이 우리말과 만나면 우리말이 풍부해집니다. 그 결과물을 단순히 번역투라고 비난하면 새로운 시도를 못하게 되고, 국어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도매금으로 넘기게 됩니다. 두 언어가 만나 서로 섞이면서 우리의 인식도 넓어지고 새로운 표현수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자유 간접 화법'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컨대 '나는 영화가 좋다'는 자유 직접 화법이고, '철수는 영화가 좋다고 말했다'는 간접 화법입니다. '철수는 영화가 좋다'를 자유 간접 화법이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정착이 안 됐지만, 이 화법은 19세기 프랑스 소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개입할 수 있어 현대소설에서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 정리가 잘 안 된 표현을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번역가로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

대로, 번역가가 새로운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일본어였다가 한국어로 정착된 '민주주의'라든가, '자유', '연애'를 보세요. 이 말들이 들어오며 우리의 의식도 확장됐지요.

**그동안 좋은 번역에 관한 토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건반을 잘못 누르는 일만 보는 셈입니다. 물론 건반을 제대로 눌러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번역 오류, 문체에 관한 논란이 결국 '좋은 번역은 무엇인가?'에 관한 토론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번역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빈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언론이 선정적인 걸 좋아해 번역의 오류만 짚어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웃음)

**최근 한국문학의 세계 진출이 활발한데요.**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놓고 영어 번역이 잘됐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 많습니다. 나쁜 번역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또다시 좋은 번역에 관한 논의를 가린다는 생각이 들어 우려됩니다. 또 영어 번역 문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텍스트를 번역하는 순간, 그 결과물은 영어 텍스트에 자리 잡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문학의 파생품인 셈이죠. 일종의 하위범주라고나 할까요.

**현재 번역 작업 중인 작품은 무엇입니까?**

맨부커상을 받은 조지 손더스의 <링컨 인 더 바르도>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병으로 11살 때 세상을 떠난 아들의 묘지에 가서 시신을 꺼내어 안고 오열했다는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 쓴 소설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링컨 아들의 죽음을 영혼들의 시점에서 기록한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입니다.

**번역하는 책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기준이 있으십니까?**

그간 작업 내용이 있는지라, 출판사에서 주로 알아서 번역해달라고 책을 주긴 합니다. 읽어보고 뭐든 '탁' 하고 꽂히는 게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목욕탕에서 봤는데, 뭐랄까, 후광이 확 비추는 느낌? (웃음)

글 김기중 서울신문 기자 · 사진 최성열 · 사진 제공 문학동네

## 정희우 작가



## 간판 · 공장 기계 탁본해 성수동 거리 기록



### ‘젠트리피케이션과 탁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지만, ‘도시를 기록하는 작가’로 알려진 정희우는 7월 5일~8월 31일 성수동 레이블갤러리에서 <성수동 일요일>이라는 전시를 열고 서로를 명징하게 밝혔다. 작가는 이 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성수동 거리 간판과 공장 내부의 탁본으로 표현했다. 탁본으로 독특한 질감을 얻은 한지들은 저마다 ‘한진기계’, ‘세화정밀’, ‘대성식품’ 등 한때 성수동을 상징하던 섬유·가죽·신발업체의 이름을 담고 전시실을 빼곡히 채운다. 그는 이런 이미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몰린 성수동을 ‘셔터가 내려진 일요일’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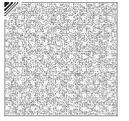
왜 탁본일까?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그는 점차 희미해지는 전통기법으로 현대 도시를 재현하는 작업이 지닌 의미를 떠올렸다고 한다. 사실 탁본도 새로운 표현기법에 둥지 내몰림을 당한 전통기법이다.

정 작가는 미술기법이건 도시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애정이 깊

다. 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묵묵히 차량과 인파가 북적거리는 강남대로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 변화한 거리에서도 사라짐은 존재한다. 오래된 건물이 헐리고 더 높은 새 건물이 들어서는 일은 날마다 반복된다.

그래서일까.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작업 노트 첫머리에 “우리가 변화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그 증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우는 서울대 동양화과를 졸업했으며, 캘리포니아 예술대에서 석사를,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강남대로를 기록한 <시간을 담은 지도>(2011)를 비롯해 거리의 표식을 탁본한 <필링 더 시티>(2012) 등 다양한 전시를 이어왔다.



## 박녕쿨 현대무용가



## 삶과 춤을 하나로 통일, 타인과 소통하는 춤



### ‘춤은 치유다.’

현대무용가이자 안무가인 박녕쿨이 추구하는 ‘커뮤니티 댄스’는 이렇게 요약된다. 그는 커뮤니티 댄스의 이런 원리를 6월 29일~7월 1일 성수아트홀에서 진행한 공연 <댄스를 부탁해5>(이하 <댄스를...>)에서 보여줬다.

커뮤니티 댄스는 춤으로 내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며 치유하는 춤을 가리킨다. 그래서 꼭 둘 이상이 함께 춘다. 커뮤니티 댄스를 ‘춤으로 하는 대화’라고 하는 이유다. 그런데 치유를 위한 춤은 틀 속에 갇히지 않는다. 이는 <댄스를...>의 부제가 ‘춤과 춤이 아닌 것의 대대’라는 데서도 확인된다. ‘대대(待對)’란 동양학에서 쓰는 용어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동시에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다. <댄스를...>에는 ‘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춤을 도와 춤을 더욱 춤답게’ 만든다. 실제로 커뮤니티 댄스는 춤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그저 몸짓으로 표현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소통하

고 치유한다.

박 안무가의 커뮤니티 댄스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춤이 진정한 완성작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는 이 영감을 “5개국의 시골 마을로 찾아가 마을사람들에게 맨발로 춤을 선물했던 프로젝트에서 얻었다”고 한다. 좋아서 추는 춤, 치료를 위해 추는 춤이라면 다른 사람이 정한 무용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믿음은 그가 대표로 있는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의 운영 모토인 ‘삶과 춤이 결국 하나로 통한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녕쿨(본명 박녕굴)은 전북대 무용과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다. 2005년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를 창단해 2012년 <댄스를 부탁해>를 초연했다. 이 작품은 한국춤비평가협회가 뽑은 올해의 베스트 작품으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성수아트홀과 함께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댄스를 부탁해5>로 관객들을 찾아 나섰다.

## 정형일 발레 연출가



## 블랙 스완은 사악한가? 선입견을 넘는 무용



### ‘흑조는 과연 사악한 존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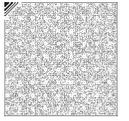
주목받는 발레 연출가 정형일은 지난 7월 7~8일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된 <투 피더스>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상식에 반하는 질문’이라 여길 것이다. 1877년 볼쇼이극장에서 초연된 <백조의 호수>에서 흑조(블랙 스완) 오딜은 ‘사악한 존재’였다. 마법에 걸린 백조 오데트를 사랑하는 왕자 지크프리트를 속여 사랑을 빼앗는다. 흑조 오딜의 이런 사악함은 백조 오데트의 순수함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한다. 그러나 정 연출가는 “그건 선입견일 수 있다”고 한다. 흑조 오딜이 왕자의 사랑을 얻으려 하는 데는 나름의 애뜻한 사연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조에도 악함이 있고, 흑조에도 선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흑조에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백조의 호수> 중 <왈츠>에 맞춰 춤출 기회를 준다. 그는 그렇게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면서 백조와 흑조를 그저 ‘2개의 깃털’로 그린다. 그의 이런 주장은 세계적 평화학자인 요한 갈통의 책 <평화 저널

리즘>의 주제와 묘하게 겹친다. 갈통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사악한 존재’들은 국가·민족 간의 단절과 몰이해가 과장해낸 허상인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단절을 소통으로 바꿀 때,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둔 옛 틀은 무너지고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는다.

정 연출가도 마찬가지다. 국립발레단 등 주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내 발레계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단체를 10년 가까이 이끌고 있다. 그 원동력도 ‘상식을 깨는 열린 상상력’이다.

“외국에서 성공한 오래된 레퍼토리는 흥행 보증수표죠. 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창작품이 중요해요. 남들이 걷지 않는 길,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정형일**은 한양대 무용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다. 미국 유진 발레 컴퍼니의 주역 무용수, 댄스이더 오브 할렘의 무용수, 국립발레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에 정형일 발레 크리에이티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 무용대상 베스트 7(2013, 2015), 춤평론가협회 춤 연기상(2012), 서울무용제 최우수단체상(2011)을 받았다.



## 권용주 작가



## 도심 속 폐기물로 석고 작품, 작가의 노동 경험 투영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예술작업 뒤로 부끄러운 생존을 숨기려 했습니다.” 예술과 노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조형작가 권용주는 자신의 초기 작업을 이렇게 기억한다. 본업인 ‘예술’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부업인 ‘노동’은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재개발이 한창인 빈민촌의 노동자였던 그는 밥벌이를 위해 하는 인테리어와 목수·미장을 예술 뒤로 감추려 했다.

그랬던 그가 달라졌다. 오는 8월 11일까지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계속되는 석고전시 <캐스팅>(Casting)을 통해 노동과 예술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준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석고작품들은 도심 속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기물로 제작됐다. 샌드위치 패널, 양철판, 플라스틱 의자, 구겨진 비닐 등 막노동 현장에서나 볼 법한 재료들이다.

그는 ‘폐기물’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발견한다. “동네 전봇대에 못 쓰는 의자를 버리면, 누군가 깨진 액자와 부러진 우산 등을 그 위에 쌓습니다.” 폐기물에서 삶을 보

듯, 이제 일상의 노동에서 예술을 본다. ‘먹고사니즘’을 위한 노동은 조연이 아니라 예술 앞에 서야 할 주연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노동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작업을 이어왔다. 전시의 소재는 ‘폐기물처럼 보이는’, 노동과 밀접한 것들이다. 단지 이번 전시에서는 ‘석고로 조형을 뜨는’ 등 작업 방식에 변화를 주었을 뿐이다. “일상 속에 존재하는 노동과 예술은 서로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 하는 노동은 제가 살아왔던 경험이며, 그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생존 모습입니다.” 권 작가는 자신의 노동 결과물이기도 하고, 예술 결과물이기도 한 석고 조형물 앞에서 힘주어 말했다.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장

권용주는 서울시립대 환경조각과를 졸업했다. 폐자재와 시멘트 파편 위에 난을 붙인 <석부작>(2016), 방수천 위로 일상 재료를 흘려버린 <폭포>(2014~2016) 등 노동이 집약된 작업을 주로 해왔다. 두산갤러리 뉴욕(2017), 아트스페이스 풀(2016)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서울시립미술관(2017), 경기도미술관(2015), 금천예술공장(2014)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8년 예술로 부모플러스 <아트, 맘을 두드리다> 참여자 좌담회

## 예술을 통한 부모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서울문화재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부모의 긍정적 자기 이해와 자아 존중을 도와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국내 최초로 예술을 통한 부모교육 '예술로 부모플러스' 사업을 2017년 선보였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TA)의 깊이 있는 통합예술교육을 통해 일상의 잔잔한 변화를 이끌며 좋은 반응을 얻은 이 프로그램은 2018년 5월, 7~9세 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트, 맘을 두드리다>로 재시동을 걸었다. 육아에 함몰되어 있던 엄마들이 예술로 자아를 성찰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예술체험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7일 8주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 교육이 끝난 후, 예술가교사와 엄마들은 한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프로그램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눴다.

※ 2018년 <예술로 부모플러스>는 '어머니 예술학교'를 시작으로, 아이와 예술로 즐겁게 노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버지 예술학교', 서울 지역 초등학교, 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부모예술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

이은미(서울문화재단 연극TA)  
유정민(서울문화재단 시각TA)  
최아영(서울문화재단 무용TA)

**참여자(자녀)**

정주희(김설후, 남 7세)  
권나희(박수빈, 여 8세)  
이은정(이예리, 여 7세)  
이소영(유다현, 여 9세)  
안일경(이다을, 남 8세)

**일시**

2018년 7월 7일(토) 오후 12시~2시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아트, 맘을 두드리다〉  
8차시 프로그램**

- 1차시 현재의 나 몸 열기 마음 열기
- 2차시 과거의 나 잊고 있었던 나를 만나다
- 3차시 내가 바라는 나 나를 새롭게 발견하다
- 4차시 새로운 시선 새로운 나 낯설게 바라보기
- 5차시 바라볼 새로이, 마주보다
- 6차시 소통 1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 7차시 소통 2 마음을 들여다보다
- 8차시 공동 창작 너와 나 우리가 되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을 찾아서**

**이은미** 예술로 부모플러스 <아트, 맘을 두드리다>를 진행하면서 매 시간마다 “잘해봅시다”라고 인사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나요?

**정주희** 살아오면서 잘한다는 건 결과물이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잘한다는 건 ‘즐거운 것’이에요.

**이은정** 저에게 잘해본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재미있게 즐겨보자’입니다.

**권나희** 저에게는 잡생각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충실해서 몰입하는 의미였어요.

**이은미** 일상의 많은 일과 생각을 털어내고 이곳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엄마, 딸, 아내 등 역할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역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됐어요. 이 공간에서만큼은 ‘나’로 만나길 바랐는데 그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요.

**이은정**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보통 나의 과거와 현재를 심리학으로 풀어내는데, 예술로 풀어내는 것이 신선했어요.

**이은미** 혹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나요?

**이은정** 처음에는 ‘이런 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옆에서 힌트를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최아영** 다들 용기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한 번 퐁퐁 뛰어들어보는 듯한 용기가 보였어요.

**이은미** 어머님들의 첫 질문은 항상 ‘어떻게 하지?’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질문인데, 차이는 고민에 그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속해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지?’를 실행에 옮긴 과정이 궁금해요.

**유정민** 저는 시각예술을 전공했지만 연극이나 무용 같은 다른 예술언어는 어색해서 손 하나 뻗기도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참여하신 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소영** 살면서 해보지 않았던 ‘몸으로 표현하기’를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와 소통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왔는데요. 자꾸 몸을 움직이라고 하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웃음) 개인적으로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고요. 다현이도 저랑 비슷해서 만들고 표현하는 건 잘하는데, 몸으로 뭘 하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유정민** 자기 자신에게 좀 더 편한 예술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소영** 맞아요. 저는 몸을 움직이는 게 어색한데 다들 똑같이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이은미** 저희도 늘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낯설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 장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최대한 덜 부담스럽고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이소영** 첫 시간에 움직임을 한 다음, 책을 읽고 무언가를 만들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집에 갈 때마다 ‘그래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정주희** 저는 반대로 만들기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편했어요. 소위 ‘금손’과 ‘똥손’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저랑 비슷하더



정주희

이은정

라고요. 평상시에 끈기가 없고 만들기를 못하는 아이의 모습에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웃음) 결과물이 생각처럼 나오지 않았을 때 아이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와 같이 인내하면서 무언가를 만들고 결과물이 나오니까, '내가 싫어하고 잘 못하는 영역도 막상 해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최아영** 수업 중에 나희 님이 “수빈이가 나랑 너무 달라서 안 맞는 것 같다”고 한 얘기가 인상 깊었어요.

**권나희** 사실 저랑 저희 엄마도 성향이 달라요. 수빈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저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닮은 모습은 인지하지 못하고 아빠랑 닮은 모습, 다른 모습만 인지하고 살았어요. 그동안은 너무 달라서 부딪힌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아이가 반항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힘들고 아이도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친해지자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든요. 하면서 ‘애가 나랑 비슷하구나, 역시 내 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나와 많이 닮았다는 사실과 와 닿았어요.

**유정민** 각자 작업한 후에 만났는데, 나희 님과 수빈이의 작품이 비슷해서 신기했어요.

**권나희**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이런 작업을 해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고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애 낳고 키우느라 바빴고요. 아이를 수업에 보내기는 했지만 제

가 이런 수업을 듣지는 않았거든요.

**유정민**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예술가처럼 자신만의 상상력, 창조적인 에너지를 어딘가에 갖고 있지만 일상에서 발현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내 안의 에너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은미** 첫 번째 수업에서는 테이프와 수건을 드리면서 이걸로 놀아보자고 했어요. 네 번째 시간에도 일상의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부탁드렸는데요. 낯설게 보기와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은 어떠셨나요?

**이소영** 저는 보수적이고 누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랑 이렇게도 놀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가 저를 힘들게 할 때 다현이에게 “행복한 고민상담소(6차시 수업)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물어보면, 다현이가 상담해주면서 분위기가 전환되었어요. 다현이가 만든 ‘알림이(7차시 수업)를 활용해서, “알림아, 너 다현이에게 가야겠다. 다현이가 씻을 생각을 안 하네”라고 했어요. 평상시처럼 말하면 잔소리로 들렸을 텐데 다현이도 그냥 “으이구” 하면서 씻으러 가더라고요.

**이은미** 그렇게 시도해본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소영**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직되어 있던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별거 아닌 것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생각의 전환이 가능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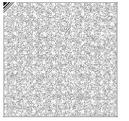
**유정민** TA들은 일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좀 더 예술적인 시선과 감각으로 바라볼 때 평소와 어떻게 다르게 다가올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준비했거든요.

**이소영** 음악을 들을 때도 “다현아, 우리 해봤잖아. 느껴봐” 하고 대화하는 거죠.

**이은미** 지금까지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었는데 느껴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최아영** 엄마가 직접 할 수 없어도 그것을 발견해주고 아이에게서 이끌어내는 말 한 마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작지만 시작된 것이 큰 변화 같아요.

**이은미**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하는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주는 것이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 아이와 따로 또 같이한 시간

**유정민** 총 8주간의 프로그램에서 앞의 4주는 아이와 엄마가 따로 하고 뒤의 4주는 같이했는데요. 두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해요. 아이들과 함께한 예술작업은 어떠셨나요?

**이은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엄마들이 과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저희에게 내줄지 걱정했거든요. 엄마만을 위한 4주의 시간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권나희** 위로가 되었어요. 솔직히 살림하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하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다 보면 하루가 가고,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일상이 이어져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내로 살면서 내가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 이걸 할 때 행복하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은미** 저희가 찍은 사진 중에 예리와 은정 님이 한 곳을 바라보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가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아이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도 필요하지만 아이와 엄마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각자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도 필요해요. 아마 나희 님도 아이와 계속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가 아이와 같은 입장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나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최아영** '모드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저 또한 누군가의 딸이고, 어느 곳에서는 막내고 어느 곳에서는 팀의 리더이고, 누군가의 부인이예요. 순식간에 전환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거나 온전히 뛰어들어서 그 역할을 만족스럽게 해내기 힘들어

요. 만약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다면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 나를 잊게 돼요. 처음에는 '나'로 전환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 허둥지둥 준비하고 여기에 와서 일상에서 벗어나 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를 내야 했을 거예요. 저는 앞의 4주 동안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이은미** 엄마의 모습이나 표현에 아이가 시선을 주고 미소 짓고 집중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유정민** 일상 속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이라, 한 명의 예술가를 보듯 바라봤을 것 같아요.

**이은미** 아이들은 정말 엄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고 닮고 배워 가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엄마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8주 프로그램에는 움직임, 이야기, 상상, 변형, 낯설게 보기, 시각적 표현과 같은 각기 다른 예술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술의 힘이 무엇이기에 처음 만난 사람들을 지켜보게 만들고 웃게 하는 걸까요?

**이은정**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권나희** 밴드 같아요. 아픈 곳을 위로해주는.

**안일경** 저는 이런 감성이 정말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4주가 없었다면 신청도 안 했을 거예요. 예술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종이테이프처럼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놀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아직 생활에서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해보는 것에 의의를 두었고요.

**유정민** '마음의 집'(6차시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다올이가 만든 집과 일경 님이 만든 집을 합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안일경**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 건 그냥 본능 같아요. 아무리 엄마가 이상해도 기본적으로 엄마를 좋아해요. 저도 항상 아이를 관찰하는 입장인데 거울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를 보면 제가 보여요. 아이가 좀 예민해 보이면, 그건 분명 제가 그런 거예요. 아이가 뭔가 어려워하면 저도 똑같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권나희** 그동안은 아이를 위해서 온 수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아이가 나를 위해 와준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은미** 첫 시간에 아이에게 엄마의 이름표를 찾아서 붙여주라고 한 것도 의도가 있었어요. 늘 엄마가 이름표를 붙여주던 아이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항상 받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이 생기기를 원했어요. '행복한 고민상담소'도



이소영



권나희

같은 맥락이에요. 엄마의 고민에 내가 어떻게 답할지 생각해보게 하는 시도, 엄마도 아이를 믿고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마음을 열어보는 과정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에는 아이를 인정해주는 지점도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나희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빈이가 훨씬 더 커 있을 수 있어요.

**최아영** 인정하고 기다려주기가 엄마 안에 장착된다면 그 느낌이 온전히 아이에게 전달될 거예요. 아이들이 느끼는 속도는 어른보다 빠르고 민감한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어요. ‘나’를 찾아가면서 점점 어른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를 온전히 믿고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하기**

**정주희** 저는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특별한 것 같아요.

**이은미** 예술가교사라는 직업, 교육적 가치관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성인과 똑같은) 한 명의 인격체로 대해요. 수업할 때도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아이들의 생각을 제가 가진 방법과 어떻게 연결할지 늘 고민해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 때 이 수업의 주인공은 선생님이 아니라 너희들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제안하면 저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함께 만들어요.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서로 간에 믿음이 쌓이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정민** 저는 처음 만난 아이들도 100%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들어가요. 믿음을 장착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수용이 돼요. 아무리 어려도 성인을 만나듯이 똑같이 해요. 아이의 생각이나 표현과 반응을 먼저 존중해주면 아이도 그걸 느끼는 순간 솔직해지더라고요.

**최아영** 저는 제 친구를 만나는 느낌으로 아이를 만나려고 노력해요. 학교로 수업을 가면 일주일마다 한 번, 6주 정도 아이들을 만나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아이들은 곧잘 속마음을 얘기해요. 이 시간만큼은 저 사람을 믿고 얘기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해서 당황할 때도 있어요. 속으로는 놀라면서도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으면 아이들은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질문을 통



안일경

해서 아이들과 조금씩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해소해요. 제 역할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질문해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권나희** 저도 수빈이에게 그렇게 해주어야겠어요. 첫 수업 끝날 때 이은미 선생님의 “나희 님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라는 한 마디는 제가 여기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사실 저는 소심한 편인데 선생님이 쓰으 던진 말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뛰어다니게 되었죠.

**유정민** 상대방에게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도 된다는 자유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은미** 여기에 더하고 싶은 건,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라는 말이에요.

**이은정** 제가 무엇을 해도 지적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은미** 그런 믿음과 태도를 보여주면 아이들은 쑥쑥 자라요. 엄마가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엄마도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속상하다고 계속 얘기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아이들은 몰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아이들이 주변 사람을 살펴볼 수 있게 길을 내주는 것은 부모의 몫이에요.

**유정민** 예술로 부모플러스에 참여하기 전에도 아이들과 함께 예술작업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은정** 집에 비닐을 깔아놓고 온몸으로 물감을 가지고 그려본 적은 있어요. 첫째, 둘째랑은 체험활동을 많이 했는데, 셋째는 터울이 있다 보니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다양한 경험을 못한 것 같아 이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이은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어머님들의 생활이 갑자기 확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활하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거나, 짹짹가는 시계가 새롭게 보이는 순간이 올 거예요.



요. 오늘 수고한 나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몸의 감각을 깨워주는 것. 한 번 경험했으니 순간순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어떤 수업을 해보고 싶으세요?

**이은정** 몸으로 표현하고 움직이는 거요. 전에는 이런 생각조차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웃음)

**권나희** 저는 수업 횟수가 많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 와서 표현해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밥하고 빨래하지, 만들기를 하지는 않죠.

**유정민** 어떤 점에서 '나를 표현하기'를 계속하고 싶으세요?

**권나희** 집중하면서 즐겁게 몰입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놀다 가는 느낌인데 무언가가 나오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요.

**정주희** 이제 맛을 한 번 봤다면, 깊게 들어가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어요.

**최아영** 저희 엄마는 전업주부셨는데, 모든 것들을 가족에게 맞추셨거든요.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요즘은 시대도 자라는 환경도 다르니, 엄마들도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정민** 생김새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각자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을 살리고 그 색깔을 돋보이게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내 색깔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 문득 '나는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색깔을 갖고 있어야 주변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어요. 8번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어머님 한 분 한 분 모두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낯선 예술의 언어 속을 헤엄치면서 각자의 속도에 맞춰 무언가를 발견해가는 모습이 모두 특별하게 느껴졌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최아영** 어머님들이 예술을 탐험하고 예술과 반응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도 힐링이었어요.

**이은미** 저희는 평상시에 소모된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데, 이 수업은 오히려 채워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권나희** 저에게는 일주일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이은미** 나희 님께서 이 시간을 의미 있고 중요한 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과정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

도록 만드는 것이 예술의 힘이예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예술로 부모플러스 같은 사업을 만들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인원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방유경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 · 사진 서울문화재단



**이은미** 서울문화재단 연극TA

부모도 미적 체험을 경험해야 예술의 힘을 알 것이고, 그 힘으로 아이와 소통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또한 소통이었어요. 잊고 있던 나를 깨우고 알아가는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아이와의 소통. 이 소통의 언어가 예술인 거죠.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 서로를 한 사람의 예술가로 바라본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예술은 정답이 없고 나이, 성별, 역할을 초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유정민** 서울문화재단 시각TA

재단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미적 체험 예술교육을 진행한 건 처음이에요.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부모교육은 방법론이나 생활의 팁을 알려주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예술을 통해 부모 스스로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량과 에너지를 찾도록 한다는 게 중요한 취지였어요. 부모와 아이가 일상의 소재로 만든 창작물을 통해 서로를 들여다보는 거죠. 예술가가 되어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창작물로 만들어내면 그것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거든요.



**최아영** 서울문화재단 무용TA

사람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요. 터치만 안 해줬을 뿐이죠.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수업을 하면서 감각적으로 자극하고 일깨워주는 다리를 만들어주면 스스로 창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과 표정, 기운으로 부지런히 소통하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모두 예술가가 되어 감각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엄마들에게 이런 예술적 소통이 딱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엄마를 '나'로 돌려놓는 거죠.



1

증명사진 전문 스튜디오 '시현하다' 김시현 작가

## '인증' 아닌 '증명'

김시현 작가는 정형화된 기준의 증명사진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증명사진을 찍는다. 최근에는 1,000명의 증명사진으로 시대를 기록하는 사진전 <시현하다>(6. 15~7. 15)를 열었다.



2

- 1 사진전 <시현하다> 전시장 모습.
- 2 김시현 작가.
- 3 김시현 작가가 촬영한 개성 있는 증명사진들.
- 4 작업실 한쪽 벽면을 채운 증명사진들.

### 자존감 있는 사진 찍기

나만의 사진관을 갖는 것은 나의 로망이었다. 사진을 '업'으로 삼기 전, '증명사진'에 대해 깊이 고민해봤다. 증명사진이란 말 그대로 나를 증명하는 사진인데, 이제껏 증명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 정말 그 사람을 표현하기보다 파란 배경에 세상이 정한 단정함을 강요해 촬영하고 있지 않나? 양쪽 귀와 눈썹을 드러낸 채 정면을 바라보아야 하는 증명사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증명사진 규정 속에서 '무배경 또는 흰 배경'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아니, 흰색이면 흰색이지 무배경은 대체 뭐지? 아, 무늬가 없는 단색 배경이구나! 그럼 조명은? 조명에 대한 규정은 없네? 그러면 다양한 조명을 사용해도 되겠다!' 생각은 점점 확장됐다. 무엇보다 표정이나 의상, 메이크업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다양한 메이크업과 패션을 증명사진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피부는 하얗고, 입술은 빨갛고, 눈은 크고, 턱은 브이라인'이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미의 기준을 깨고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사진으로서 가치가 있길 바랐다. 이 증명사진이 대중의 초상으로서 역



할을 하고, 1,000장이 모이면 시대를 기록하는 역사가 되리라 생각하며 시작한 작업이 바로 <시현하다>이다.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는 작업실이 없어 주말마다 조명 장비와 컴퓨터를 챙겨 렌탈 스튜디오를 전전했다. 손님들을 그쪽으로 초대해 작업했는데 감사하게도 손님의 친구, 친구의 친구들이 결과물을 본 후 연락해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남은 예약이 1분 안에 마감됐고 두 달 예약이 한 번에 끝났다. 그때 자신감을 얻어 친구 4명과 함께 첫 작업실을 열었다. 사진관이라고 하면 보통 딱딱하고 긴장되는 공간으로 느껴지지만, 나의 감성과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 사진관 곳곳에 그림을 그려 넣고 특별하게 꾸몄다. 또 은속공예가와 타투이스트,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 조금 더 트렌디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하에 있는 작업실이라 여름에 초파리가 너무 많이 생겼다. 지금은 옥상에 있는 사무실로 공간을 옮겼는데, 훨씬 숨쉬기가 편해졌다.

내 작업에서 배경색 말고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존감'이다. 내가 정의하는 자존감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사랑할 줄 아는 힘이다. 다들 증명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원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다. '내가 이렇게 못생겼냐며 경악하거나, 생각보다 무덤덤하거나, 원본도 예쁘다며 좋아하는 사람. 그중 원본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드물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쁘다고 말하는 것에 엄격하고 외모에 대한 자기 검열도 심한 편이다.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 백발에 눈썹이 없는 분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어 당연히 지우고 눈썹도 그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다크서클이 있어야 자기 같고, 눈썹은 원체 술이 없는 탓에 어릴 적 놀림을 받았는데, 일부러 밀어버렸다고 했다. 나도 내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가 정말 심했다. 예뻐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고, 사진을 찍으면 포토샵 작업도 많았다.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사랑하는 손님 덕에 나는 단점도 감추면 콤플렉스가 되고 드러내면 개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색이 있다. 사람의 얼굴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의 얼굴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좋겠다.

### 1,000명의 증명사진, 시대를 기록하다

증명사진은 10년 후, 이 시대를 나타내는 초상 사진들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1,000명의 증명사진을 찍는 작업을 1년의 시간 끝에 마무리하고, 지난 6월에는 한 달간 압구정 캐논 갤러리에서 초상전을 열었다. 다양한 인물들의 성향과 분위기를 색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증명사진에 대한 생각을 담아낸 전시다. 기존 사진관의 형식을 깬 작업실을 공개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전시 기간에 만들어지는 사진들 또한 하나의 작품으로 공유했다.

앞으로 사진관 문화를 더 멋지게 가꾸는 역할을 하고 싶다. 또 나와 같이 타인의 순간을 기록할 사진가들을 양성하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 진지하게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늙어가는 사진가로 사람들 곁에 남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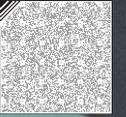
글 · 사진 제공 김시현 증명사진 전문 스튜디오 '시현하다' 대표

# 책거리

서강

세교리





책  
거  
리



기다립니다.  
여름의 끝에 이르고 찾아올 계절을

경의선 책거리에서  
사진 조현우

# '미술창작 대가기준'을 둘러싼 우려 폭넓은 소통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창작 노동의 대가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술, 시각예술 분야에서 예술가 개인에게 법벌이의 부담을 전가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들의 작업 자체를 노동으로 바라보고, 창작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요구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 작업이 경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창작이 가능한 미술 생태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창작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무엇보다 그 대가를 받아야 할 예술가들이 정작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가기준을 논의하려면 시각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폭넓게 소통해야 한다. 또한 대가기준에 대한 내용도 현 시점에서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해지고 구체화돼야 한다.

## 아티스트 피 기준 마련 찬성, '양극화'와 '구체성 부족' 우려

미술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아티스트 피 제도가 공공미술 전시나 행사에 도입될 것이란 이야기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회자된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유아무야된 것 같더니 지난해 9월 초 언론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5곳이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며 의아해했다.

지난 6월 27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미술창작 대가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

렸다. 홍태림 미술평론가는 "정책 당사자인 예술인을 꾸준히 소외시켜왔으며, 지금도 시각예술 분야 대다수 예술인은 아티스트 피가 어떤 기준을 근거로 작동하는지 모른다. 아티스트 피가 추진되는 과정을 시각예술인과 폭넓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시범운영했다는 '작가보수제'를 개편한 '미술창작 대가' 기준안이 소개됐다. 창작 대가 항목을 기존보다 확대해, 작가들에게 인건비 성격의 용역 대가와 함께 신작과 구작, 사후 출판작까지 저작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용역 대가를 통해서는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조치를 적용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가의 용역 대가를 과거 전시 횟수와 함께 전시 장소(등록미술관, 미등록미술관, 국내전, 국제전)와 성격(개인전, 단체전)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나왔다. 예를 들어, 등록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작가는 해당 전시 횟수를 1회로 인정받는 데 반해, 미등록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은 0.5회로 책정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작가들은 창작 대가기준 마련 자체는 환영하지만, 등급별로 작가들을 구분해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예술가 그룹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비제도권 작가들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소위 잘나가는 작가에게 더 많은 인건비를 보장하고, 신진작가나 대안전시 등 비제도권 내에서 활동하는 작가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곧 미술 생태계의 다양성에 반하는 처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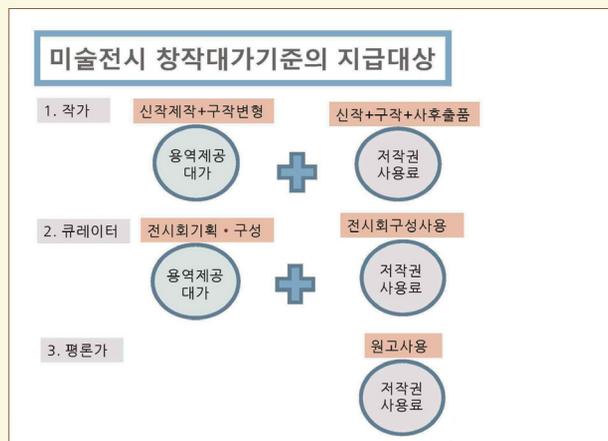
국내 미술계에서는 창작 활동과 관련한 계약이 아직도 낯설다. 외국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2017 작가보수제 시범적용(안)		2018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안)	
<b>작가보수</b> 월 기준단가 x 전시종류에 따른 참여율 x 전시기간 x 전시종류 x 예산가중치		<b>용역제공대가*</b> / <b>저작권사용료</b> 월 기준단가 x 창작기간(월) x 참여율 / 1일기준금액 x 전시일수 x 작가별 배분율	
작가	기준	월 기준단가	(1) 1일기준금액 x 전시일수 x 작가별 배분율 / 총작가수
	A 개인전 4회 이상	4,722,536	(2) 2,000원 x 전시일수 x 작가별 배분율 / 총작가수
작가	B 개인전 4회 미만	2,367,724	(3) (1), (2) 중 큰 금액
	기준	월 기준단가	20,000원 x 전시일수 / 참여유대역수
큐레이터	해당 없음	작가와 같은 기준 적용	20,000원 x 200자 원고지역수
평론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적용가능

2



3

1 \_\_\_\_\_  
 지난 6월 27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미술창작 대가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오진희)

2 \_\_\_\_\_  
 2017년 작가보수제와 2018년 미술전시 창작대가기준의 차이.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창작 대가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3 \_\_\_\_\_  
 이번 기준안에서는 창작 대가 지급 대상은 작가는 물론 큐레이터, 평론가로 확대했다.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창작 대가기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4 \_\_\_\_\_  
 김환기 회고전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 관객들. (자료사진)

전시 관련 인터뷰나 작가와의 대화 등 작은 활동조차 계약이 일상화돼 있다. 이 토론회에서 작가들은 창작 대가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관련 제도들이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 큐레이터, 평론가도 창작 대가 지급 대상

토론회에서 발표된 창작 대가 기준안에서, 대가 지급 대상은 비단 작가만이 아니었다. 큐레이터와 평론가 역시 전시기획과 미술평론이란 창작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받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큐레이터는 상근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와 독립 큐레이터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달라, 이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제도가 정착되면 큐레이터 인건비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 외국인 기획자에게 터무니없는 기획비를 제공하면서도 전시의 질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산 문제로 전시기획에 투입하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론가들은 이 제도가 젊은 평론가 양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글 오진희 메트로신문 기자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 ‘펀돈공제’로는 부족하다

지난해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성인은 59.9%로,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공연 쪽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공연 관객은 3,06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1% 하락했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 얼마나 효과 있을까?

7월 1일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본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서 · 공연비에 대한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소득공제 항목이 됐다 것은 독서와 공연 관람이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필수활동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또 도서 · 공연시장 활성화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나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 관심 환기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정확히 돌려받게 되는 액수는 몰라도 일단 보다 싼 값에 책과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

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후 책 판매가 반짝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7월 1일 이후 일주일간의 도서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국내 최대 공연티켓 예매처이자 인터넷서점인 인터파크 역시 “도서 매출액이 직전 열흘간에 비해 18% 늘었다”고 밝혔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문화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행대로라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은 미미하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자. 연간 총 급여 4,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책 사고 공연 보는 데 100만 원을 썼을 때 세금 감면액은 4만 5,000원 정도다. 무엇보다 애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15%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은 사실상 약 2만 2,500원에 불과하다. ‘펀돈공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연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포함된다는 의미라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공연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감하기 힘든 소득공제만으로 관객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소득공제보다는 실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세금에서 소비한 액수만큼 제해주는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출판계가 주장해왔던 세액공제 15%(100만 원 한도)에 비해서





2



는 혜택이 줄어든 법안”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향후 공제 범위와 공제율 확대의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현장 혼란,

### 추후 관리 필요

현장의 점주는 물론 소비자들도 시행 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출판 쪽에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공제 대상인 도서와 잡지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 2회 결제가 불가피하다. 공연 쪽에서는 전시와 영화관람이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까지 모든 결제수단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건 아니기에 고객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도 있다. 페이코, 쓱페이,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의 간편결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네이버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는 기술적 문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7,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쉽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크지 않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

1 한 대형서점의 모습. (자료사진)

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용 스티커.

다”고 했다.

독서는 생각의 지평을 넓혀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적으로 출판문화 진흥에 힘 쏟고 있다.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공제는 2006년 여의원 20명이 발의하면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소득공제 시행까지만 자그마치 12년이

걸린 셈. 미국은 도서구입비를 학생의 경우엔 교육비에, 근로자의 경우엔 업무 관련 경비에 포함해 공제 혜택을 주고 독서를 권장한다. 호주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일정 금액의 도서구입비를 직접 지원해준다.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글 김연주 매일경제 기자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대상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나 현금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
공제율	30%
공제 한도	100만 원
해당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 기맹점으로 등록된 도서 및 공연 티켓 판매 사업자 869개(7월 2일 기준)</li> <li>•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li> <li>• 인터파크 티켓, 옥션 등 주요 공연 티켓 판매사</li> </ul>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구입비에 전자책은 포함되지만 오디오북과 잡지는 불포함</li> <li>• 온라인 연재 웹툰(출간된 건 가능), 해외 사이트 결제분은 제외</li> <li>• 영화나 방송 등의 녹화 영상 제외</li> <li>• 휴대폰 소액결제, 네이버페이 현재 불가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은 가능)</li> </ul>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설 프로젝트〉

# 예술을 바꾸는 서울, 서울을 바꾸는 예술

예술은 사회적으로 기능하고, 예술의 효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변한다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예술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진다. 예술가는 꼭 필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서울, 지금 이 시대라는 무대에 선 연기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1

예술활동의  
○○○○○  
다변화와  
\*\*\*  
사회적  
○○○  
실천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1 연구보고서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2 2017년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리온드레이블 결과 공유회.

## 예술의 힘을 질문하기

예술가들 스스로 사회 안에 설정하는 역할 역시 달라지고 있다.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존재 중 현장 파견 예술가와 참여 예술가는 여전히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불어 늘어가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민간 자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와 소통하려는 대안적인 예술적 시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공공정책도 마찬가지다. 시민문화예술, 다원예술, 공공예술,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아트, 생활예술과 일상창작, 지역문화사업 등을 권장해 왔고, 최근에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지에 기여하는 예술 활동을 유도해왔다. 예술가들은 이에 조응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생각의 틀을 넓혀가면서 이런 정책담론에 인식을 같이했다.

현장 예술가와 대다수의 시민은 예술이 사회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예술가의 작업이 사회 변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의 창작 과정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 또 예술작업을 대면한 감상자와 소통을 나누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사람들의 태도, 성찰, 비판력, 삶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것을 예술의 임팩트(impact), 예술가가 세상에 미치는 이펙트(effect), 혹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인플루언스(influence) 등으로 부른다.

2018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은 이 영향력을 몇 가지 길로 펼쳐보는 자리다. 예술을 통해 서울이 더 나아지고, 서울에서의 삶이 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 예술가의 작업이 정신적인 풍요와 정서적인 위안 이상으로 서울의 생활 여건과 시민들의 하루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술가는 예술적 동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서울시민의 생애를 다루고, 서울의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의 사회문제를 드러낸다. 예술은 사회 안으로 파고들어 역동적으로 기능한다. 분명 이 자극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사회를 고민하고 행동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굳이 사회를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예술적 소통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예술가는 공익적인 효과를 드러내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결핍을 되돌아보고 깨닫게 한다. 예술의 사회적 책



2



임을 규정하거나 모든 예술가에게 사회 참여를 요구하지 않아도,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효용을 증명한다.

### 예술은 사회를 바꾼다는 전제를 얻다

2017년에는 이 점에 주목해 예술가, 문화기획자, 사회적기업가들과 11회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예술을 사회적 활동 차원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예술가들이 이야기해온 예술의 중요성, 공공재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예술작품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예술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마땅하다는 전형적 논리가 다시 부각됐고, 사회의 가치재, 경쟁재로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암묵적인 주장도 반복됐다.

예술과 사회는 분리할 수 없으며, 예술이 사회적 요청으로부터 구분되는 순수성을 갖는다는 서구 근대예술의 일부 주장에 얽매일 수 없다는 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도 예술가의 창조 의지에 맡기지 않고, 사회 참여와 현실 비판의 역할을 예술가들의 가슴과 머리 밖에 부과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정책과 이론이 예술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규정한다는 추상적 담론을 펼쳐 구체적인 현장 실천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서울문화재단에 바라는 제언이기도 했다. 과민하다고 느낄 정도로 현장 예술가들은 이 점을 강조했다.

예술가의 소통은 사회 비판과 문제의 과정, 개인의 각성과 반성을 통한 실천, 일정한 소통의 변화 같은 것을 의도한다. 다른 한편으로 예술가의 의도하지 않은 표현과 그로 인한 강력한 인상은 사람들의 지적이고 감성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정서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 등 예기치 못한 크고 작

**3**  
2018년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심층연구 4차 라운드테이블.

**4**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의 2018년 사업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 프로젝트>의 포스터.



은 충격을 주는 것이다. 11번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예술은 힘이 있고 사회를 바꾸는 영향력이 있다는 전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예술가의 수만큼 사회적 효과는 다양하다

전년도 연구에 이어 4회 더 진행된 2018년 라운드테이블은 분명한 현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고, 현장의 경험을 모아 '예술적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사회적 예술'을 정책사업으로 드러낼 때, 예술가의 자유 의지를 억제하고 자연스러운 예술작업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이론과

비평 영역에서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다룰 때, 과거의 미학, 예술학, 사회학, 인류학, 예술경영의 언어로부터 연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사회적 예술의 추세와 유형을 도출할 때, 공통점을 못 찾을 정도로 다양하게 진화한 현장 예술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귀납해야 한다고 했다. 예술가들은 독특한 인식의 틀을 갖고 있다. 자신들을 사회적 실천을 하는 존재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사회를 개선하는 존재,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기보다는 자유 의지로 사회 안에서 소통하고 자극을 주는 존재, 작품 안에서 사회의 이야기를 다루는 존재로서 근대적 자아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현대적 자아를 주장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의 정책 담당자들은 예술의 사회적 효용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예술이 사회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무엇을 지원해야 사회와 예술 현장에 도움이 될지를 찾고자 한다. 또한 예술가들의 사회적 실천을 조명하는 것 못지않게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예술이 예술가들과 일부 수용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에 좋은 효과를 가져



1

예술의 사회적 실천과 관련된 역량 강화 사업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인(人)사이트>의 포스터.

2

2018년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셜인(人)사이트> 캠프.

온다는 것을 설득하고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역할을 현장 예술가들과 일부 이론가들, 비평가들은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라운드테이블은 예술가(활동)의 수만큼이나 사회적 효과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예술의 효과는 열어놓고 보아야 한다. 사회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고발하는 ‘나쁜’ 예술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 공헌하는 봉사자 같은 ‘착한’ 예술, 사회를 개선하는 혁신가나 사회를 책임지는 기업가 같은 ‘사회적’ 예술이 있다. 철저히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작품 안에 사회의 아픔을 담은 경우도 있고, 참여예술이나 순수예술이 아닌 소통예술, 예술의 사회적 행동도 있다. 이렇듯 라운드테이블은 예술이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정의하는 기회가 됐다.

1

### 지역을 바꾸는 예술과

#### 청년예술가에 주목하기

2016년 12월 21일에 열린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은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 팔도에 꽃피는 지역문화처럼 서울에서도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지역문화 사례들이 속성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수십 가지 현장을 만들어낸 예술단체와 문화기획자, 지역 공동체들이 연이어 발표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2016년 여름,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기획자 교육과정 내내, 학습하는 문화기획자들이 서울 내 지역의 문화공간과 현장을 방문해 연대망을 구축했기에 가능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교육받지 않고 직접 서울시 창작공간과 지역문화 현장을 탐방하며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네트워킹하는 가운데, 서울의 문화기획자들, 지역과 주민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술가들의 공감대가 쌓였다. 이러한 양성과정 끝에 포럼을 통해 작지만 단단한 현장 사례를 조명하자, 지역활동가, 문화기획자,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사례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활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

았다. 서로 의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형성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다.

2016년 12월 14일에는 청년 문화예술인으로부터 정책과 지원에 대한 건의를 듣는 정책포럼 <청년, 문화예술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을 살리는 청년 문화기획자들의 삶,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망 구축의 필요성, 지역을 살리는 청년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두 번의 포럼은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생활문화, 주민들이 취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상 예술창작이 중요한 것처럼,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는 청년예술가 및 문화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지역거점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예술이 지역문화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7년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이를 바탕으로 시작했다. 청년들이 공공 영역에서 예술을 통한 사회실험을 전개하거나, 기후환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2월에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바탕으로 200여 가지의 활동 사례를 모으고, 그중 50여 사례들을 11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유했다. 이로부터 '사회적 예술'이라고 부를 만한 새로운 예술 활동의 동향과 추세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 예술 현장의 다양한 실험을 기다린다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은 2018년 사업으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설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서울이 직면한 사회적 이슈와 연계된 활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예술의 사회적 실천과 관련된 역량 강화 사업으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소설인(人)사이트>를 진행하는데, 이는 예비 및 청년 문화기획자, 지역활동가, 예술가 등을 대상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의미 확산에 실질적으로 끼치는 영향 등을 성찰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시 말해 예술 활동 주체들의 기획과 실행 역량 중에서 소설 임팩트에 대한 성찰 비중을 높인 것이다.

전반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을 바꾸는 예

술: 모·임>을 열고 있다. 함께 모여서 임팩트를 내자는 취지로 현장 예술가, 문화기획자, 사회적기업가, 주민 커뮤니티 등이 모여 살롱, 워크숍, CoP(Community of Practice), 세미나, 네트워킹 등 자유로운 형태로 자신들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제2회 서울을 바꾸는 예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 2017년 연구사업인 <예술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심층 연구> 후속으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서울문화재단의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재단의 사업 방향은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나 '사회적 예술'을 정의하기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에 집중하기보다 '예술가들과 함께 변화하는 서울'을 즐기는 목소리도 있다. 마음을 바꾸는 예술, 사람을 바꾸는 예술, 세상을 바꾸는 예술, 그 무엇을 추구하든 열린 정의와 변화 가능한 유형의 탐색이 더 중요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이전에 예술을 바꾸는 서울이 되기 위해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를 지원하는 절차와 방식 자체를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또 사회적 예술을 정의하기보다는 예술가, 지역활동가, 사회적기업, 문화기획자 등 주체에 따라 활동을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예술가들의 창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술에 이어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예술을 위해 조금 더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이다.

글 안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서울문화재단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2017), <예술의 사회적 활동 심층연구>(2018) 라운드테이블 모더레이터.

사진 서울문화재단



3, 4 2018년 <서울을 바꾸는 예술: 모·임> 포스터와 모임 모습.



※ 본 코너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시리즈의 일환으로 9월호에는 '진실 혹은 대담'에서 계속됩니다.



## 역사책방

# 역사와 함께 노닐다

역사를 좋아하는 전직 IT기업 임원이 역사 전문서점을 시작했다. 백영란 대표가 운영하는 이 서점의 이름은 '역사책방'이다. 경북궁 영추문 근처에 있어 '영추문 앞'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한적하고 운치 있는 서촌과 어울리는, 서촌으로 이사 가고 싶게 만드는 책방이다.

“몇 년 전 어느 날 직장 다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 친구가 서점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좋다고 호응하면서 저도 서점을 생각하게 됐죠.”

백 대표는 석사과정까지 역사를 전공했다. 이후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IT업계에서 외도하다 좋아하는 역사로 돌아온 것이다.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퇴직 이후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쳤다. '주 52시간 근무'가 화두지만 5월 2일 책방 문을 연 이후 주 7일 근무 중이다. 오전 10시 30분 오픈이라 늦어도 10시까지 출근한다. 초기에는 저녁 9시에 문을 닫았는데 퇴근하고 오기 애매하다

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한 달 만에 10시로 연장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책방에서 보내는 셈이다.

### 주민들이 지나가다 들르는 책방

책방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주민 3명이 들어왔다. 거의 매일 들르는 단골이란다. 주민들은 길을 오가며 들르고, 밤에 산책하다 들러 책을 사고 주문도 한다. “손님들은 남녀노소 정말 다양해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역사책방 자리에는 원래 상패와 트로피 만드는 공장과 가게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실내가 꽤나 널찍하다. 카페와 다락방처럼 오붓한 모임공간도 있다. 대형서점과 독립서점의 중간 정도 규모다. 이웃들에게 서점이 들어오면서 골목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단다. “역사 전문서점은 사대문 안, 궁 근처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원래 사직동과 창덕궁 근처를 중심으로 자리를 알아봤는데 이곳을 짚해두고 비교해보니 여기만 한 곳이 없더라고요.”

역사책방에는 역사 전문서적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이 진열되어 있다. 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든 것에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무겁고 어려운 역사책만 가득했지만 문을 연 후 손님들의 이런저런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책의 분류와 진열을 바꾸면서 구성이 다양해졌다. 원래 역사와 여행은 같이 가



2



3



4



5

- 1,3 역사책방 내부.
- 2 역사책방 외관.
- 4 다락방처럼 오붓한 모임공간.
- 5 강연을 진행하는 홀.

는 거라는 얘기에 여행 섹션을 추가하고, 하루에만 3명의 서촌 주민이 얘기해서 서촌 코너를 만들고, 손주를 데리고 온 분들이 찾아서 어린이 역사책도 들여놓는 식이다. 주변에 건축이나 미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건축사와 미술사도 포함됐다. 초기에 생각했던 역사책의 범위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넓어진 셈이다. “제가 철학을 전공했다면 사람들이 어려워했을 텐데 역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같아요.”

지금 비어 있는 서가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수집해 보관하고 있던 책들을 갖다놓을 예정이다. 반헌법 행위자 400명을 기록한 책의 출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 교수가 내놓은 귀한 책을 역사책방에서 대신 판매하는 것이다.

#### 통인동의 문화 플랫폼

역사책방에서는 6월 7일 ‘신병주의 조선 돌아보기’를 시작으로 매주 1회 이상 강연이 열리고 있다. ‘통인 플랫폼 12’라는 이름으로 소통의 거점이자 열린 강단을 지향한다. 주로 서울시민들이 오

지만 지방에서 올라와 참석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신간 <애인이 있는 시간>을 낸 신현림 작가에 이어 7월 18일에는 유시민 작가, 7월 26일에는 윤후명 작가의 북 토크가 열렸다. 8월 9일에는 홍순민 교수의 한양도성과 궁궐 이야기 강연이 있고, 8월 11일에는 세종대왕 즉위일에 맞춰 인근 생가터를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한다. “강연은 주로 홀에서 하는데 미처 몰랐던 장점은 밖에서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 좋아요.” 강연 이외에도 전시와 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한다. 지난 6월에는 첫 전시로 아마추어 작가 2인의 <펜으로 그린 서촌전>을 진행했다. 8월 15일에는 동네 주민들을 위한 첫 번째 작은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유시민 작가의 북토크는 돌베개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해 열게 됐다. “책 제목이 <역사의 역사>이니 역사책방에서 해야죠.”(웃음)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저기에서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사람이 계속 많이 모여야 해요. 지금까지는 주로 직접 기획했지만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출판사와도 연계해서 하려고요. 공간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책방 자체가 개인 공간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서점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각박한 현실을 체감했다는 백 대표의 소망은 단순명료했다. ‘오래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서점 일에 행사 기획과 운영까지 겸하다 보니 정신이 없고 놓치는 일도 많아요.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하나씩 하려고 해요.”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제공 역사책방

엘리펀트스페이스

# ‘22세기 문화공간’ 지향하는 가변적 실험공간

아카이브 전문그룹 레벨나인이 2017년 4월 서교동에 개관한 엘리펀트스페이스는 ‘22세기 문화공간’을 표방한다. 이곳은 ‘100년 후의 박물관과 공연장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현실로 구현했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여러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가 함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펼치는 곳, 엘리펀트스페이스를 찾았다.

### 다채로운 장르 융합이 일어나는 큐리어스 큐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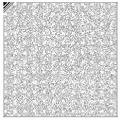
개관 1주년 기념전으로 지난 6월 열린 <죄의 정원>은 이 공간의 지향점을 한눈에 보여준다.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을 테마로 삼았지만, 해석은 디지털 세대의 눈높이에 맞췄다.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서 제공받은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원화를 재해석한 ‘프로젝트-레벨나인’의 아트 다큐멘터리, 보쉬의 그림 속 기이한 식물들을 재해석한 식물상점의 설치작품, 보쉬의 정원을 소리로 재구성한 밴드 이상의 날개 리더 문정민의 사운드 설치 등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여느 전시에선 접하기 힘든 범죄심리학자 표창원과 철학자 심세광의 강연, 싱어송라이터 이랑의 클로징 공연 등 독특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화제를 모았다.

엘리펀트스페이스는 공간을 기획하고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전시장, 공연장, 혹은 강연장이 되기도 한다. 같은 주제가 참여자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는 모습은 ‘장님과 코끼리’의 우화에



서 여섯 장님이 각자 만진 부위에 대한 기억만으로 코끼리를 설명하는 대목을 연상시킨다. 실제로 엘리펀트스페이스의 김정옥 디렉터는 이 우화를 염두에 두고 공간의 이름을 지었다. 그는 “코끼리를 진실의 메타포로 해석하기도 한다. 뭔가 알 수 없지만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사건을 각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곳이길 바라며 지은 이름이다”라고 작명 취지를 밝혔다. 작지만 겹겹이 의미를 담은 공간, 엘리펀트스페이스는 그렇게 탄생했다.

다큐멘터리 영상작가였던 김정옥 디렉터는 2014년 서울의 한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기획자로 일하던 김선혁 디렉터에게 협업 제안을 받아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활동 분야는 달랐지만, 언젠가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일 판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뜻은 같았다. 두 사람은 2016년 여름부터 세계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제공한 고화질 디지털 자료를 모아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레벨나인에서 박물관·미술관 아카이브와 전시 웹사이트를 구축했던 경험이 새



- 1 <죄의 정원> 전시실 전경. (사진 김상태)
- 2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 <들숨날숨>.
- 3 김순남 탄생 100주년 기념 <전복된 시간을 위한 협주>.
- 4 <에드워드 호퍼: 밤을 기다리는 사람들> 작품 도슨트와 재즈 공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해외에 있는 스칼라 아카이브와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도 맺었다.

짬짬이 등지 틀 곳을 물색하던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제빙기 창고였던 서교동의 빈 건물이었다. 실면적은 좁지만 층고가 높아 관람자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기에 좋았다. 공간의 협소함은 한쪽 벽 전체를 거울로 채워 넓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했다. 두 디렉터는 엘리펀트스페이스의 심장과 같은 이 공간을 큐리어스 큐브(Curious Cube)로 명명했다.

#### 디지털 자료를 요리하는 실험공간

예술작품을 그저 원본과 사본으로만 구분한다면, 원본을 복제한 디지털 리소스는 단순히 ‘가짜’로 폄하될 뿐이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조악한 복제 이미지나, 책에 조그맣게 인쇄된 그림을 떠올린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엘리펀트스페이스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소장처에서 직접 구한 고화질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아카이브로 구축해 분류함으로써 가치를 부여한다. 이 자료들은 원본이 지닌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한 재료로 다시 태어난다. 같은 재료라도 누구의 손에 들어가 어떻게 요리되는가에 따라 예술의 맛은 달라진다. 엘리펀트스페이스가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들은 전시뿐 아니라 공연을 통해서도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치

러냈다. 4K 멀티 프로젝션으로 투사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과 재즈 공연이 어우러진 융합형 공연 <에드워드 호퍼: 밤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낮 공연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좌석이 매진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엘리펀트스페이스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창작과 연구, 전시, 공연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세대의 젊은 창작자들에게는 디지털 자료만큼 요리하기 좋은 재료도 없기 때문이다. 김선혁 디렉터는 “버추얼 뮤지엄과 원본이 있는 뮤지엄의 중간 지점에서 어떤 길을 찾고 있다”고 지향점을 밝혔다. 발품 팔고 비용 들여 모은 정보들도, 국내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공유할 생각이다. 현재는 기획과 공연, 전시에 치중하고 있지만 역력이 생기면 연구 활동도 함께하고 싶다.

“복합문화공간이나 대안공간보다는 실험공간으로 불러주길 원한다”는 엘리펀트스페이스의 다음 전시는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는 <유목증후군: 어둠이 낮보다 먼저 오듯>이다. 싱어송라이터 최고은의 동명앨범 <Nomad Syndrome>(2017)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유목’과 ‘증후군’에 초점을 맞춘 음악, 사진, 회화, 설치,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다. 홈페이지(www.elsespace.io)에서 공연 및 강연 예약도 가능하다.

글 고경원 자유기고가 · 사진 제공 엘리펀트스페이스



1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와 <웃는 남자>

# 사랑, 한여름 밤의 꿈같은

한 생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을 꿈꾼 적 있는지. 한 몸인 듯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다 함께하기 위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생각한 적 있는지.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와 <웃는 남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을 배경 삼아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의 의미를 묻는다. <번지점프를 하다>의 서정적 넘버들은 초연부터 수많은 마니아를 낳았고, <웃는 남자>의 화려한 무대는 지금 당장 브로드웨이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만큼 압도적이다.

- 1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 “남자는 왼발이 먼저 앞으로, 여자는 오른발이 먼저 뒤로 가는 거예요.” 처음 왈츠를 출 때 태희(김지현)가 인우(강필석)에게 건넨 말은 17년 뒤 교사가 된 인우의 학교 운동회 2인 3각 경주로 되살아난다.
- 2 뮤지컬 <웃는 남자>. 유랑곡예단 두목 우르수스(양준모 · 가운데)와 곡예단 사람들의 공연은 무대장치와 의상, 음악과 춤 등 모든 면에서 가장 흥겹고 화려한 명장면 중 하나다.
- 3 뮤지컬 <웃는 남자>. 압도적 화려함을 자랑하는 이 뮤지컬에서 가장 극적이며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

영원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번지점프를 하다> 6. 12~8. 26,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첫눈에 반해 영원으로 가는 사랑이 있을까. 흘러간 옛 노래 같은 이 질문에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연출 김민정)는 천연덕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있다’고 답한다. 이 뮤지컬은 사랑에 대한 순진하고도 견고한 확신을 꽤 설득력 있게 객석으로 전염시킨다. 서사는 섬세하고, 무대는 영리하며, 무엇보다 넘버들은 포근하고 따뜻하다.

갑자기 비가 온 날, 어리숙한 대학생 인우(강필석, 이지훈)의 우산 속으로 한 여학생이 뛰어든다.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만 데려다주실래요?” 그렇게 잠시 만났다 헤어진 뒤 우여곡절 끝에 찾아낸 빛속의 그녀 태희(김지현, 임강희)는 왜 그동안 자신을 보고도 모른 척했느냐고 인우에게 말한다. “조심하고 싶었어요. 아는 척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까 봐.” 운명은 두 사람에게 가혹하다. 인우는 태희를 교통사고로 잃고, 17년 뒤 교사가 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에서 자기 반 남학생 현빈(이휘중, 최우혁)이 태희의 환생인 것을 알아본다.

자칫 구전 설화처럼 들릴 뻔한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풀어내기 위해, 뮤지컬은 개연성의 벽들을 섬세하게 쌓아올리는 정공법을 택한다. 다시 태어났어도 연인은 물건을 들 때면 새끼손가락을 펴고, 손가락과 젓가락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를 묻는다. 대학 시절 ‘오른발, 왼발’ 하며 함께 쫓던 왈츠의 옛 기억은 현재의 학교 운동회에서 2인 3각 경주로 되살아난다. 배우 이병헌과 고(故)

이은주가 주연한 동명의 영화에서 꼼꼼히 옮겨온 설정들이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일등공신은 서정적 뮤지컬 넘버들이다. “만약에/ 추운 바람이 우리를 괴롭혀도/ 서로를 더 꼭 안아줄 이유일 뿐야”로 이어지는 인우와 태희의 노래 <그게 내 전부라는 걸> 등의 감미로운 노래들이 흐르면, 객석 여기 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무대미술은 벽돌 사이에 벌어진 빈틈을 메워 깔끔하게 포장하는 솜씨 좋은 미장 같다. 영화의 장면을 전환하듯 조명과 영상막으로 무대 위 공간을 빠르게 변환하고, 옛 대학 강의실과 지금의 학교 교실도 무대의 깊이를 활용해 영리하게 교차시킨다.

사랑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월급처럼 잠깐 머물다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에 뚫린 구멍 역시 버튼만 누르면 리셋되는 게임처럼 단박에 복구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뮤지컬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한 생을 건너 재회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잊은 줄 알았던 각자의 애뜻한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일 것이다.

#### 네 미소가 내 안의 괴물을 비추네

**<웃는 남자> 7. 10~8. 26,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오페라극장  
9. 4~10. 28,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무대 위 장막엔 길게 찢어진 붉은 입술 형상이 가로질러 걸려 있다. 이 형상 주변으로 파열하듯 장막이 걷히면, LED 영상과 조명의 도움을 얻은 무대장치들이 파도처럼 일렁인다. 풍량이 이는 거대한 바다, 마지막 참회의 기도를 하는 악한들, 거칠게 휘몰아치는 라이브 오케스트라 연주... 뮤지컬 <웃는 남자>(연출 로버트 요한슨)는 도입부터 압도적 무대로 관객을 빨아들인다.

18세기 영국, 기괴하게 웃는 모양으로 찢어진 입을 가진 남자 그윈플렌(박효신, 박강현, 수호)이 있다. 어린아이를 납치해 기형으로 만들어 곡예단에 파는 악당들에게 어릴 적 납치돼 생긴 흉터. 그의 곁엔 앓을 보지 못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 데아(민경아, 이수빈)가 있다. 두 사람은 어릴 적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어가던 둘을 거둬준 곡예단 두목 우르수스(정성화, 양준모)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함께 악극 <웃는 남자>를 공연하며 떠돌아다닌다. 어느 밤, 이 공연에 왕의 사생아 조시아나 공작부인(신영숙, 정선아)이 찾아와 그윈플렌을 유혹하면서 운명의 소용돌이가 모두를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 뮤



지컬은 선언처럼 뚜렷한 이 대사를 반복해 제시하며, 대답하는 두 세계를 교차·대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간다. 귀족 세계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키치 취향. 하지만 가식적이며 잔혹하다. 반면 평민과 곡예단원의 세계는 그로테스크하지만 따뜻하고, 인간적 온정이 살아 있다. 반원형으로 여러 겹 겹쳐지며 무대를 입체적으로 감싸는 배경장치는 깊이에 따라 액자처럼 작용하며 두 세계를 대비시킨다.

부와 명예를 위해 거래되는 귀족의 사랑 역시 데아와 그윈플렌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명징한 대비를 이룬다. 그윈플렌을 침대로 끌어들이려다 거절당한 조시아나는 노래한다. “넌 달라/ 네 미소가/ 내 안의 괴물을 비춰주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괴물 하나 품지 않은 사람 있으랴. 하지만 그윈플렌은 겉모습은 괴물이지만 잠시 흔들릴지언정 마음의 순결을 잃지 않는다. 반면 착취와 억압 위에 기생하는 귀족들은 고결한 척하지만 그 영혼은 이미 괴물이다.

화려하고 장엄한 무대와 의상은 압도적이다. 최고의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야기의 구조가 리듬감 있게 기승전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 호오가 갈릴 것이다.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1802~1885)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주인공 그윈플렌의 찢어진 입은 배트맨의 숙적 조커의 모티브가 됐다.

글 이태훈 조선일보 기자 · 사진 제공 세종문화회관 · 달컴퍼니, EMK

전시 <민화, 현대를 만나다: 조선시대 꽃그림>과 <플랫랜드 Flatland>

# 전통과 현대를 공유하는 이상향

한국미술의 고유한 조형성과 흐름을 해석할 수 있는 전시가 서울 시간동에 나란히 위치한 갤러리현대와 금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화랑과 사립미술관이라는 상징성에 더불어 한국미술의 고전미와 현대성을 조명한 두 곳의 전시는 한국미술의 뛰어난 조형성을 해석할 수 있는 맥락적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조선시대 민화의 독특한 표현양식은 시대와 장르를 넘어 한국인의 독자적인 미의식을 표출한다. 내용과 형식이 다른 두 전시가 태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유전적 형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미의식을 관찰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 한국 전통예술의 추상적 관념

<민화, 현대를 만나다: 조선시대 꽃그림> 7, 4~8, 19, 갤러리현대

한국 현대미술사에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그 의미를 주목받은 '단색화'의 조형성은 간결하면서도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구성과 고유한 사유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색화를 포함해 추상미술이라고 하면 일단 몬드리안, 칸딘스키 등 해석하기 어려운 작가들의 작품들을 떠올린다. 대개 무슨 이미지인지 형상을 알 수 없으니 시쳇말로 아이들 장난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이런 추상미술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풀어줄 단초가 이번 민화 전시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민화의 이미지는 '속화'(俗畵)다. 상류층과 서민 할 것 없이 즐기던 광의의 문화인 민화가 '아마추어 예술', '백성의 그림'이란 이미지로 제한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전시에는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아르 브뤼'(아마추어의 다듬지 않은 거친 형태의 미술을 가리키는 말)적 매력이 넘치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궁중 화원의 솜씨가 아닌가 싶은 정교한 작품들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민화'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에 대해 전시를 공동 기획한 고연희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민화"라는 용어 때문에 민화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민화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한다. "민화는 배우지 못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오해가 '포크 아트'(folk art)로 번역되는 '민



화라는 단어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민화에서 보이는 상상력과 상징성은 추상미술을 연상케 한다. 사진적 의미로 추상미술이란 비구상미술, 비대상미술이라고 불리는데, 자연물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미술이다.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대상(사람, 꽃, 동물 등)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을 듣는다. 추상미술은 결국 색채, 질감, 선, 창조된 형태 등의 추상적 요소로만 작품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이 없는 형상을 추출하는 방식은 곧 무의식에 잠재된 형상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과정과도 같다. 민화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달리의 그림처럼 초현실적이며, 몬드리안의 절제된 구도에서 보이는 함축적인 상징성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민화는 파격적인 실험성과 대담한 표현에 더불어 새로운 형식을 구현했으며, 한국 현대회화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는 평소 민화와 백자를 애장했다. 그의 추상적 태도는 이러한 모습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김환기가 추구한 한국 현대미술의 태생적 뿌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형의 구도와 여백의미를 간직한 조선의 미의식에서 기인했다.

민화 꽃그림의 장식성은 패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깊이 있는 공간보다는 평면 위를 향유하는 얇은 공간을 선호했고, 아라베스크 문양처럼 전통적으로 꽃과 줄기로 이뤄진 구성적인 특색이 강하다. 민화 꽃그림은 회화와 디자인의 장르를 넘나드는 이미지 세계를 보였다. 패턴은 민화 꽃그림을 감상하는 중요한 패스워드다.

정병모(경주대 교수)

### 한국 현대미술의 조형적 원류

#### <플랫랜드 Flatland> 6. 1~9. 2, 금호미술관

금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플랫랜드>는 한국 현대미술의 조형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통해 다차원의 공간을 맥락적으로 해석하는 전시다. <플랫랜드>는 도시와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추상이 지니는 동시대 미술의 의미를 살펴본다. 기하학적 형태를 탐구하거나 일상의 사물을 조형적 요소로 변환하는 등, 작가들은 미술의 전통적 과제인 '재현'의 문제에서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나름의 방식으로 포착하고, 추상화해 보여준다. 전시장 1층에 설치된 최선의 대형 회화작품 <나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숨결로 완성된 살아 숨 쉬는 나비이다. 민화의 주요



3

- 1 <낙도> 8첩 병풍, 종이에 채색, 각 91×38cm, 19세기 말~20세기 초, 개인 소장.
- 2 <화훼도> 종이에 채색, 각 54×65cm(4점), 19세기, 개인 소장.
- 3 최선, <나비 Butterflies> 캔버스에 잉크, 각 160×914cm(6점), 2014~2017.

화제로 등장하는 나비를 이 시대의 방식으로 완성한 현대적 민화라고 할 수 있다. 원작자의 오리지널리티에 함몰되지 않고 대상을 표현하는 민화의 조형성처럼, 과정을 중시하며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표현했다. 인종과 세대를 아우르는 관객 참여형 아카이브 작업이다.

지하 1층에 설치된 차승언의 작품은 씨실과 날실의 짜임으로 구성된 격자의 그리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섬유를 직조하는 구조는 태생적으로 기하학적 구성을 만들지만, 직조된 화면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물감을 덧입히는 과정에서 새로운 패턴을 구성하는 전통자수의 유연한 조형성을 연상할 수 있다. 2층에 전시된 김규호의 영상작업 <잔광>은 빛으로 그려낸 일상의 풍경이다. 구체적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형상을 빛의 흐름에 따라 재해석해 자유로우며 절제된 민화적 조형미를 보여준다. 3층 전시장을 구성하는 조재영의 작품은 조각보와 책거리에서 보이는 기하학적 패턴과 추상적인 공간감을 경험하게 한다. 단위 개체로 구성된 유니트가 모여 전체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버려진 천 조각을 모아 만든 조각보의 조형성과 다차원의 소실점이 구성하는 책거리의 공감각을 연결한다.

글 양찬제 AK갤러리에서 전시를 기획하며, 을지로에 위치한 '상업화랑'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 갤러리현대, 금호미술관

책 <역사의 역사>와 <역사기들>

# 시간을 돌아보고 시대를 이해하다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소설책이 쏟아진다. 그에 못지않게 은근히 많이 출간되는 게 역사책이다. 물론 주목도는 소설책이 높다. 안 그래도 너무 더워 허 빼물고 있는 판에 역사책이라니. 그런데 올해를, 어느 때보다 역사책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작가'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 때문이다.



## 역사 훑어보기

### <역사의 역사> 유시민 지음, 돌베개

<역사의 역사>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때 기획된 책이다. 6월 말 출간 이후 역사책으로는 이례적으로 각 서점의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원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데다 tvN <알쓸신잡>, JTBC <썰전> 같은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발군의 입담 덕으로 보인다.

보폭이 넓은 책이다.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에서 시작해 중국의 사마천, 이슬람의 이븐 할둔, 유럽의 랑케를 거쳐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유발 하라리에 이르기까지 16명의 역사가와 그들이 쓴 18권의 역사책 이야기를 담았다. 역사 서술의 시초에서부터 동·서양 역사가도 다루고, 인공지능(AI)으로 초래될 인류의 미래까지 언급한 셈이다. 다름 아닌 '유시민'이, 다름 아닌 '역사책'을 다뤄준 건 일단 고맙다.

미안하지만 미담은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곱씹어 먹을 건터기가

부족하다. 가령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내는 코드는 '분노의 문학적 승화'다. 유 작가도 이 틀을 따라가지만, 뒷받침해주는 상세한 논리와 설명이 부족해 글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특히나 유 작가는 이 분노를 '우아하다'고 표현했는데, 글쟁이의 분노는 치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사학자를 다룬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자신은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발 빼면서도 신채호에 대한 '국뽕적 해석'에 기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아쉽다. 한국 최초의 사회경제사가로 꼽히지만 월북으로 잊힌 백남운을 다시 불러낸 것도 반갑다. 허나 도식적인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역사 해석에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은 열게 깔려 있을 뿐이다.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과 지금 다시 '평가'하고 '인정'한다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때론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7장에서 E. H. 카를 다루고 8장 슈팽글러·토인비·헌팅턴, 9장 제레드 다이아몬드·유발 하라리로 직행한 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좀 심하다. <역사의 역사> 자체가 아무래도 지명도 있는 인물을 다루기 때문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 해도 20세기에 등장한 다양한 역사학을 통째로 건너뛴 건 무리한 진행으로 보인다. E. H. 카 이후엔 우울한 문명사가, 윤철기삼의 지구사가, 글밭 좋은 파국론자 같은 이들밖에 없단 말인가. 한편에서 <역사의 역사>에 대한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 12명의 역사가 이야기

### <역사가들>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지음, 역사비평사

원래 지면의 취지와는 결이 다르지만, <역사의 역사>의 대척점에 선 책보다 보완해줄 만한 책을 소개하고 싶다. 역사비평사가 2010년에 내놓은 <역사가들>이다. 역사학이란 어떤 방식으로든 민족, 국가 등 특정 집단을 암암리에 전제한다. 그 때문에 역사가가 집단 간 투쟁의 무기나 도구로 쓰인다는 염증, 혹은 비판이 접증했다. 거대 정치사에서 벗어난 사회사, 신문화사, 미시사, 일상

사, 기업사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온 배경이다. <역사가들>은 20세기 역사학계의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역사의 역사>가 통째로 빼먹은 이 이야기들을 12명의 역사가에 대한 이야기로 압축해 전달한다.

두 책에서 겹치는 역사가는 딱 한 명, E. H. 카뿐인데, 그마저도 포인트가 다르다. 유시민을 비롯, 수많은 작가들이 마르고 닳도록 언급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대신 33년 동안 14권으로 집대성한 <소련사>가 서술 대상이다. 역사학자로서 카가 집중 연구한 대상은 '역사철학' 혹은 '사학사'가 아니라 '소련사'다. 그 덕에 스탈린 체제의 옹호자라 공격받고 학계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E. H. 카의 울분에 찬 모습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역사란 무엇인가>가 급서로 지정된 걸 두고 군부 정권이 무식한 증거라고 하는데, 군부 정권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철저했다.

'기업사'를 만든 알프레드 쉐들러도 흥미롭다. 회장님의 결단과 사원들의 땀방울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우리가 번영했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사보형 기업사가 아니다. 기업의 규모가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추적한 끝에 쉐들러는 '보이는 손'을 제시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대기업 전문 경영진의 보이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통찰이다.

또 분단 시기 서독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동독의 역사뿐 아니라 동·서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역사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크리스토프 클레스만에 대한 소개도 흥미롭다. 20세기 대한민국사 또한 그렇게 쓰여야 하지 않을까. 유럽을 개별 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반파시스트 연합'이라는 관점 아래 유럽 통합사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발터 립겐스의 방식도 '이제는 동아시아 시대'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파시즘을 구술사로 분쇄한 루이자 파세리니, 대영제국의 작동 방식을 귀족들의 심성과 행위 방식으로 다시 풀어낸 데이비드 캐너다인, 서구중심주의 타파를 내건 안드레 군더 프랑크와 케네스 포머란츠 등 눈길을 끄는 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역사가들>은 <역사의 역사>를 보충하고도 남는다.

글 조태성 한국일보 기자·사진 제공 돌베개, 역사비평사



영화 <어느 가족>과 <박화영>

# 가족의 초상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 가족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 각각의 사연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특이한 가족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살펴본다. 가족의 형태를 통해 일본 사회에 만연한 소외의 문제를 되짚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가출 청소년들의 주거지인 '가출팸'에 대한 리얼한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되돌아보는 이환 감독의 <박화영>, 두 작품이다.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할머니(키키 키린), 아빠 오사무(릴리 프랭키), 엄마 노부요(안도 사쿠라), 고모 아키(마쓰오카 마유)까지, 어린 쇼타(쥬 카이리)가 사는 작은 집은 늘 북적거린다. 할머니의 연금과 일용직 업무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경제는 늘 빠듯하다. 아빠와 아들이 '다정하게' 슈퍼마켓을 털어 생필품을 조달하는 것은 익숙한 가족 일과 중 하나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 가족의 상황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남들이 보기엔 썩 좋지 않다. 가족은 가난하기도 하거

니와 뉴스에 나올 만큼의 심각하고도 말 못할 비밀을 숨긴 채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다. 어느 날 부자가 길에서 발견한 소녀 유리(사사키 미유)로 인해 이 가족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 추운 겨울, 집을 나와 길에서 떨고 있는 유리를 가족들은 외면하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와 한 가족처럼 보살핀다.

<어느 가족>은 유리의 출현으로 위기를 맞은 이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를 스텔러적인 형식으로 담아낸다. 장르적으로는 조금 낯설지만,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를 꾸준히 보아온 관객들에게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아무도 모른다> 이후 꾸준히 가족의 속내를 탐구해온 고레에다 감독의 신작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레에다의 작품 속에서 보아온 가족 구성원들이 마치 한자리에 모인 것 같다. 실제 키키 키린, 릴리 프랭키 등이 그의 작품에 다수 출연한 배우라는 점도 감독이 의도한 바를 보충해준다.

카메라가 노부요 가족의 비밀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영화는 물질적 풍요와 혈연이 맺어준 관계망 속에서, 진짜 가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한다. 간직하고 싶은 이 영화의 많은 장면들 중 하나는 처마에 모여앉아 멀리 터지는 불꽃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모습이다. 카메라는 화려한 불꽃을 잡는 대신 쏟아지는 불꽃에 행복해하는 가족을 내내 비춘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물질이 없더라도 함께 모여 있는 시간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 멀리서 바라보고 선불리 평가하는 시선은 가족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어느 가족>은 고레에다 감





1,2 영화 <어느 가족>.  
3,4 영화 <박화영>.

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클로즈업 컷을 활용한 작품이다.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던 <아무도 모른다>의 엄마와 달리, 이번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우는 장면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감독은 “평소에는 ‘오프’로 할 감정인데 오히려 토로하는 장면을 작품에 남겼다”고 밝혔다. 영화는 이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10대에게 가족이란

### 이환 감독의 <박화영>

‘가출팸’은 ‘가출 패밀리’를 줄인 10대들의 용어로, 10대들이 형성한 일종의 가족을 말한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 살며 그들끼리 숙식을 해결한다. 원룸, 모텔, 고시원 등이 그들의 아지트가 된다. 또래끼리의 모임이지만, 가출팸 내에서 아이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규칙을 따르며 살아간다. 특히 집을 소유한 아이들이 가출팸 내의 규칙을 정하는 ‘아빠’ 혹은 ‘엄마’의 역할을 맡는다. 가정과 사회의 보호망 아래 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범죄의 유혹은 늘 가까이 있다. 가출팸 내의 폭력은 물론, 생계를 위해 도둑질을 일삼거나, 여학생들의 경우 조건만남에 동원되는 등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박화영>은 지난해 가출팸을 통해 소외받은 10대들의 실상을 전한 <꿈의 제인>에 이어 가출팸의 실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화다. 18살 소녀 박화영(김가희)은 가출팸의 ‘엄마’로 통한다. 화영은 모델로 활동하는 ‘얼짱’ 미정(강민아)의 단짝친구다. 미정은 화영을 ‘엄마’라 부르고, 화영은 그런 미정의 보호자라도 된 듯 그녀를 위해 밥과 빨래는 물론, 미정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대신 상대해주는 등 무엇이든 다 해준다. 미정의 남자친구 영재(이재균)가 미정을 두고 가출팸 내의 다른 아이에게 한눈을 팔 때, 미정보다 분노한 이도 화영이다. 미정을 향한 엄마 화영의 애정은 미정이 조건만남으로 중년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면서, 결국 견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화영의 미정을 위한 ‘헌신’은 일반적인 친구들 사이의 것 이상이



다. 그래서 미정에게 무엇이든 다 베풀어주는 화영의 행동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정작 집을 나온 화영은 가족에게 애정을 받지 못하는 10대로, 친구에게 ‘엄마’라 불리는 순간, 오히려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 장면부터 육중한 몸매에 ‘씨발’ 같은 욕설을 숨 쉬듯 내뿜는 박화영의 존재감이 화면을 압도한다. 엄마라고 부르라며 아이들을 옥박지르고, 백주대낮 집 앞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에게 “한 번 줄까?”라며 팬티를 내리려 하는 모습은 그녀의 폭력성을 한층 강화하는 에피소드들이다. 하지만 미정을 제외한 타인에게, 특히 어른들에게 날을 잔뜩 세우는 화영의 모습은 사뭇 슬프다. 마치 한없이 어린 살을 숨기기 위해 딱딱한 껍질을 지닌 갑각류를 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환 감독은 문제적 아이라고 일컫는 10대들의 생활 속을 리얼하게 파고들어, 그들을 방치한 어른들, 그리고 가족의 역할을 되짚게 한다.

글 이화정 씨네21 기자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어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주요 교과목에  
예술을 접목해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국어나 수학 등 주요 교과목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예술을 접목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예술 전공자가 아닌 데다 예술이 멀게 느껴져 쉽지 않네요. 좋은 의견이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다 같이 공부하는 방법

예술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활용한 ‘교육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 선생님들의 공통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재단은 예술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과 만날 때 우리의 삶을 보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예술가를 고민했습니다. 재단은 현재 학교 공교육 현장으로 예술가교사(TA)를 파견하는 <예술로 플러스>, <예술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예술로 플러스? 예술로 플러스!

질문자님의 고민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은 <예술로 플러스>입니다. 재단 예술교육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 사회 등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교과목을 예술의 상상력과 자유로운 표현 등을 통해 새롭게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 5개 학급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서울 전역 768개 학급에서 총 53명의 TA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극, 음악, 시각예술,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전공의 TA가 초등학

교 교실로 찾아가 아이들이 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담임교사에게는 실제 수업 시간에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을 공유합니다.

실제로 매년 상당수의 교사들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예술가가 직접 진행하는 예술 수업에서 수업이 예술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장점을 배우고, 좋은 영감을 얻었다”, “수업을 직접 경험하



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술의 특징을 배울 수 있었다”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 수업이 예술을 만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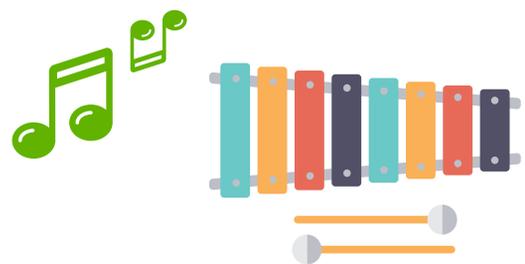
〈예술로 플러스〉의 세부 프로그램은 재단 TA들과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등 교과연계 예술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교사라면 매년 8~9월경 재단 예술교육팀과의 사전 협의로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교과와 예술을 연계한 교육콘텐츠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위해 개발의 전 과정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현재 재단이 발간하고 있는 〈예술교육총서〉 시리즈는 현장에 필요한 이론과 축적된 실제 사례를 예술교육 관계자들과 공유합니다. 그중 〈수업이 예술을 만났어요〉는 초등 교과연계 예술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정리한 책입니다. 예술과 연계할 수 있는 교과목 설정에서부터 예술 장르와 작품 선정 및 실제 수업 적용에 이르기까지, TA와 교사가 함께한 16주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라피티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느낌을 주장하는 법을 배우거나 낱말을 몸으로 익혀 춤으로 만들고, 시(時)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등 교과목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적용한 사례와

인터뷰는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예술과 교과가 만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2018년 2학기도 예술로 플러스

재단에서는 2006년 어린이 돌봄교실 〈예술로 돌봄〉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TA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는 초등 교과연계 예술 프로그램 〈예술로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학기에는 서울 전역 80개교 384학급에 TA를 파견해 5학년 국어, 사회 과목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2학기에는 79개교 384학급의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6학년 수학, 2학년 통합교과(가을, 겨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김명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





〈사진〉 1950년대 말 한강.

서울의 역사와 함께 흐르다

## 우리 곁의 한강

수천 년간 서울의 남과 북을 가리며 흘러온 한강에는 서울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수영을 즐겼던 낭만적인 옛 모습은 사라진 채 이제 인공 구조물로 뒤덮이고 말았지만, 한강은 여전히 한여름이면 서울시민의 더위를 식혀주는 소중한 휴식공간입니다. 한강 곳곳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 느긋한 산책을 떠나봅시다.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서울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한강의 상류부는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뉘어 흐르다가 양수리에서 하나로 합쳐져 팔당호를 지나 서울로 들어옵니다. 북서쪽으로 직진하며 폭을 넓힌 한강은 임진강과 섞인 후 강화만을 통해 서해로 들어갑니다. 한강이라는 이름은 큰 물줄기를 뜻하는 한기람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초기에는 대수(帶水)로 불리다가 고구려에서는 아리수(阿利水), 백제는 옥리하(郁利河), 신라는 한산하(漢山河)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백제가 중국 동진(東晉)과 교류하며 한수(漢水) 또는 한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건국된 조선은 한강 유역의 한양으로 천도했습니다. 한강 뱃길을 이용해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쉽고, 외국과의 교역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천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 한강의 다리

한강에 처음 다리가 놓인 것은 1900년입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철교인 한강철교가 이때 준공됐습니다. 1950년 6·25전쟁 때 폭파됐던 이 다리는 2년여 만인 1952년에 복구됐고, 2006년 등록문화재 제250호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950년대 이전에는 한강철교와 한강대교(1917년 준공), 광진교(1936년 준공) 등 3개의 다리만 있었습니다. 1970~80년대 경제 성장기에 강남 개발 등을 이유로 14개가 집중 건설됐고, 2000년 이후에 6개의 다리가 추가로 놓였습니다. 현재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총 28개이며 2020년에 29번째 다리인 월드컵대교가 완공됩니다.

서울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긴 것은 3km에 육박하는 마곡대교(2,930m)이며 방화대교(2,559m), 월드컵대교(1,980m), 가양대교(1,700m), 올림픽대교(1,470m), 행주대교(1,460m) 등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짧은 다리는 잠수교로 795m에 불과합니다. 한강 다리 28개의 일 평균 통행량은 10만 70대(2018년 1월 기준)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붐비는 곳은 한남대교로, 하루 평균 21만 7,618대의 차량이 통행합니다. 한남대교는 왕복 12차로를 갖춰 '차로 수가 가장 많은 한강 다리'로도 기록됐습니다.

### 그리운 한강의 옛 모습

한강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시기는 1960년대입니다. 1967년 서울시는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여의도와 강변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또 압구정, 반포, 잠실지구 등에 있던 공유수면을 흙으로 덮어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했습니다. 강남은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후 한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지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총 사업비 9,560억 원을 투입해 한강 종합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만들고, 한강변을 콘크리트로 덮어 13개 지구의 고수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하천의 모

습은 사라지고, 인공 구조물로 뒤덮였습니다. 2007년에는 한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자는 취지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수립됐지만 결국 외관 가꾸기에만 치중했습니다. 수변공간이 보기 좋고 이용하기 편리해졌지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합니다.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1950년대 말 한강에서 보트를 타고 수영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멀리 피서를 갈 필요 없이 인근 한강에만 나가면 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강 개발이 시작된 후 준설 작업으로 수심이 깊어져 수영을 할 수 없게 됐고, 백사장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웁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7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반포한강공원에서 '한강 야경투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전문해설사가 서울 야경을 펼쳐내는 빛과 색채, 한강 다리와 주변 건축물, 서래섬과 달빛 무지개 분수 등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또 투어 참여자를 위한 특별 포토존과 즉석 퀴즈쇼, 야광 부채 흔들기 등의 이벤트도 마련된다고 하네요.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진 김현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구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장세이 작가의 가회동

# 낮선 듯 낯익은, 서울의 소음

‘생태 이야기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세이 작가는 10여 년 서울살이의 공허함을 가회동에서 채웠다. 가회동의 소박한 골목 문화와 아담한 한옥은 서울의 이미지를 거대도시에서 사람 사는 곳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문화와 전통, 아름다움과 여유가 가득한 그만의 가회동을 소개한다.



가회동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여유가 있는  
동네다.

### 일상의 아름다움이 모인 동네

부산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자라다 25살 무렵, 잡지기가 되면서 서울에 왔다. 김해평야 한가운데 눈발에 둘러싸인 촌락, 300명이 넘는 텃밭을 품은 너른 집에 살다가 콘크리트 마당을 지나 별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 한 칸에 사는 건 유배생활 같았다. 다행히 10여 년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거처도 조금씩 나아졌지만, 뭘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공허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북촌에 취재를 갔다가 그곳에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까지 서울에서 본 적 없는 낮고 환한 동네에 단박에 반해버렸다. 내키는 대로 아무 골목으로 들어서도 담을 나누어 쓰는 소담한 한옥이 이어지는 정취는 낯선 듯 낯익었다. 햇살 가득한 큰 길 옆에 두고 예스런 가게가 마주한 풍경은 흡사 소읍 풍경처럼 정겨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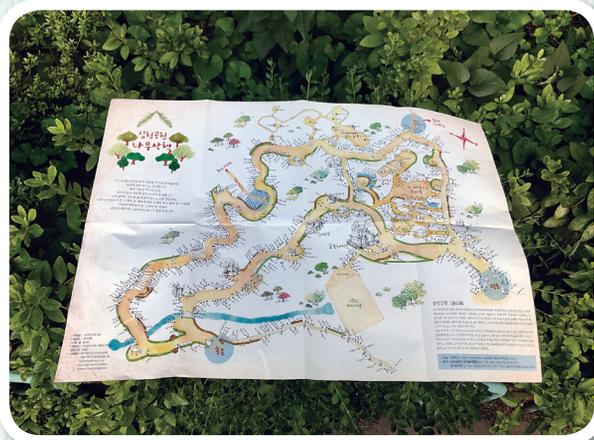
이전까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 번다한 메트로폴리스였는데 가회동을 만나고서야 서울 또한 ‘사람 사는 데로 다가왔다. 비로소 콘크리트 틈 사이로 돌아난 흰민들레가 보였다.

끝내 북촌으로 거처를 옮겼다. 현대식으로 개조했지만 어엿하게 기와를 인 우리 집은 한옥치고 드물게 옥상이 있어 작으나마 텃밭도 만들었다. 함께 사는 고양이 ‘메이’는 옥상 문으로 나가 북촌 전망을 즐기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고양이들과 격전을 벌이더니 이내 그들과 어울려 날마다 밤마실을 즐기는 ‘북촌 고양이’로 거듭났다.

가회동은 살아보니 더 좋은 동네였다.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있어 언제라도 궁궐 나들이를 하고, 가까운 삼청동과 서촌까지 느긋이 걸어 다녔다. 정독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지금은 사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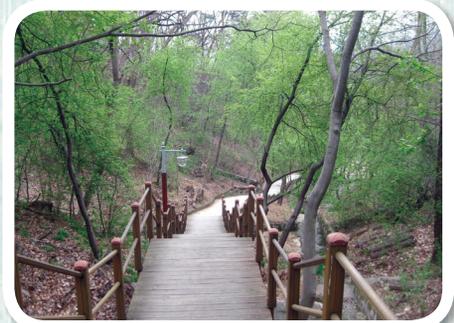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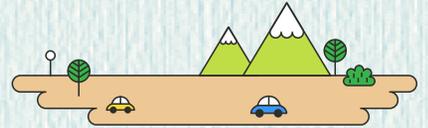
‘녹색 허기’를 채워주는 창경궁.



삼청공원을 향한 소박한 헌사로 '삼청공원 나무지도'를 제작했다.



밤마실을 즐기는 '북촌 고양이'로 거듭난 '메이'.



갓가지 풀과 나무가 사는 삼청공원.



씨네코드 선재에서 예술영화를 봤다. 머릿속이 번잡할 때 호젓한 소격동이나 원서동 골목을 걸으며 마음의 속도를 늦췄다. 그야말로 가회동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여유, 곧 아름다움이 모인(加會, 嘉會) 동네였다.

#### 나만의 자연학습장, 삼청공원

다만 너른 숲이 없다는 점은 아쉬웠다. 때때로 창경궁과 종묘에서 '녹색 허기'를 채우다가 우연히 삼청공원을 발견했다. 종종 삼청동 산책을 하며 스치듯 지날 때는 몰랐는데, 걱정하고 살펴보니 삼청공원은 갓가지 풀과 나무가 사는 울창한 숲이었다. 마침 숲해설가 공부를 시작하던 무렵이라 '나만의 자연학습장' 삼아아침저녁으로 삼청공원에 드나들었다.

서울숲이나 남산공원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삼청공원의 매력은 무궁했다. 낮은 산자락에 기대 있어 길의 고도와 모양이 구간별로 제각각이라 오래 걸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숲 안쪽에는 높이 솟은 아까시나무, 소나무, 가죽나무, 느티나무 등 거목이 살고, 숲길 가장자리에는 조팝나무, 참빗살나무, 국수나무, 쥐똥나무, 수수꽃다리 등이 살았다. 드물게 호두나무나 아그배나무, 복사나무, 고욤나무 등도 살았다. 공원 내 가회배수지길에 죽 늘어

선 채 계절마다 두그두그 못 잇을 장관을 선사하던 귀룽나무는 오래도록 그리운 나무다.

봄이면 숲에서 가장 먼저 잎을 틔우는 귀룽나무는 늘어진 가지와 포도송이 같은 꽃이 참으로 고아하다. 잔바람에 긴 가지와 탐스러운 꽃이 하늘하늘 흔들리면 그 아래 앉아 평정심을 되찾았다. 아련하고도 평화로운 기억이다. 돌이켜 생각하니 귀룽나무가 그토록 좋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 고아한 멋이 가회동과 꼭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가회동에 살며 삼청공원을 학습장 삼아 숲해설가 공부를 한 이야기는 <서울 사는 나무>라는 책으로 엮어 나왔고, 1쇄 한정 부록으로 '삼청공원 나무지도'를 만들었다. 공원 길가에 사는 나무를 낱알이 밝힌 그림지도는 삼청공원을 향한 소박한 헌사였다.

가회동이 좋아질수록 입춘에 대설을 걱정하듯 '행여 여기서 오래 못 살면 어찌나' 하는 불안을 느끼기도 했다. 5년여가 흐른 지금, 옥수동에 살며 생태서점을 운영하느라 마음만큼 가회동을 자주 찾지는 못한다. 하지만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갈 적마다 서울을 떠올리면 항상 북촌의 한옥과 가회동 골목이 떠오른다. 요컨대 나에게 서울은, 가회동이다.

글·사진 장세이 옥수책방 대표, <서울 사는 나무> 저자

‘중국몽’(中國夢)과 중국‘멍’

# 보이는 것 너머의 중국

중국, 중국인, 중국 제품에 대해 말할 때, 당사자는 중국, 중국인, 중국 제품의 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만(주로 비난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격에 대해 말하는 셈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가 만나는 수준의 중국, 중국인, 중국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곧 자신의 수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큰 나라다. 큰 나라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자신이 본 일면만으로 중국을 단정하는 것은 성격의 경솔함, 혹은 경험의 일천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중국을 함부로 낮추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격을 낮추는 일이 될 수 있다. 어제의 중국과 오늘의 중국이 다르고 34개의 성·자치구·직할시·특별행정구마다 특징이 다른데 이들을 함부로 뭉뚱그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중국에 대해 말하기가 거울이 되는 것은 중국을 비난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오랫동안 홍콩에서 문화연구를 했던 장정아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장은 홍콩인들의 중국 비난에서 이런 현상을 보았다. 홍콩인들은 우산혁명 이후 자신들이 반대했던 것이 중국인지, 중화인지, 중국공산당인지, 중국 본토인(대륙인)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이런 것을 반대하면서, 반대편에 자신들만의 홍콩이, 홍콩 정신이, 홍콩 민주주의가, 홍콩인이 있는지 돌이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큰 거울을 통해 홍콩을 들여다본 셈이다.

## 하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대륙

눈앞에 보이는 중국이 중국의 전부가 아니다. 중국을 볼 때는 중후장대한 중국이, 격조 있는 중국인이, 고급스러운 중국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 중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중국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나라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기자협회 중국단기연수로 방문한 베이징에서 그 말을 실감했다.



2010년에도 한국기자협회와 중국기자협회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으로 중국을 찾은 적이 있는데 많은 변화가 읽혔다. 그때와 지금 한국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에는 한국을 ‘배울 것이 있는 나라’로 본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수 아래의 나라’로 보는 시선이 역력했다. 한국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10년에는 중국기자협회 측의 대접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융숭했다. 사드 갈등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보다 태도가 확연히 냉담했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 대기업 법인장들의 이야기도 비슷했다. 중국과의 격차가 온몸으로 느껴진다고 하며 “사드 때는 핑계 댈 것이라도 있었지만 사드 한한령이 풀리고 있는 지금은 핑계거리도 없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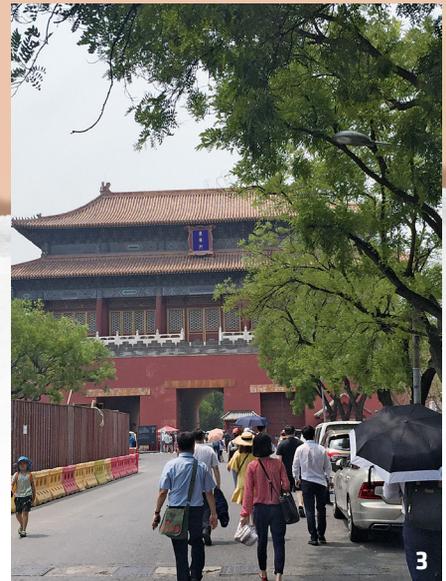
다. 우리의 진짜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는데 초라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한국기업의 패착으로 ‘하나의 중국’을 상정한 것을 꼬았다.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34개의 나라가 모인 ‘하나의 대륙’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렇다’고 쉽게 규정을 내리고 마케팅 전략을 폈는데 판판이 깨졌다고 한다.

#### 명 때리기에서 벗어날 때

중국단기연수 중 이욱연 서강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우리와 비슷한 여정으로 베이징(연경)과 승덕(열하)을 여행하고 <열하일기>를 남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중국의 장관은 깨진 기왓장과 똥거름에 있다”라고 말한 것을 예로 들며 중국인의 ‘이용후생’(利用厚生) 정신을 설명했다. <열하일기>를 들고 베이징과 승덕을 여행하며 지금 중국의 ‘깨진 기왓장과 똥거름’을 찾았다.

연수 기간 동안 발견한 ‘깨진 기왓장과 똥거름’은 차로 분리대와 공중화장실이였다. 베이징의 간선도로에는 중앙 분리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차로 분리대가 있었다. 그래서 혼잡한 구간에서 정해진 차로로만 차들이 빠져나가게 해 병목 현상을 방지했다. 중국의 시민의식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를 통해 이를 거의 완벽하게 방지했다.

다른 하나는 대로에 일정한 간격(1~2km)으로 설치된 공중화장실이였다. 늦은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고 문을 열어놓아 행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상방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다. 화장실은 깔끔했다. 세계 여러 도시를 돌아보았지만 이 정도로 공중화장실이 잘된 곳은 보지 못했다. 차로 분리



- 1,3 만리장성 금산령 구역과 자금성.
- 2 중국단기연수 때 방문한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 본사.
- 4 베이징 거리의 노점.

대와 공중화장실은 베이징만의 특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중국의 문명 개조는 인상적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2기에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득 중국이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명 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고 싶은 중국만 보면서 말이다. 서울에서 보는 중국 관광객의 모습이 중국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들의 시민의식을 지적하며 정신승리를 하는 동안 중국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중국‘명’에서 깨어날 때다.

글·사진 **고재열** 시사IN 편집기획팀장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와  
드뷔시의 <바다>

## 바다 음악으로 떠나는 음악 피서

여름은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계절이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하려면 시원한 바다만큼 좋은 곳이 없으니 말이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바다란 곧 모성애”라고 말한 것처럼 바다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기에 인간은 언제나 바다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감수성이 풍부한 음악가들도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차이콥스키의 환상서곡 <템페스트>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본 윌리엄스의 <바다> 교향곡, 드뷔시의 관현악곡 <바다>는 모두 바다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담아낸 클래식 명곡들이다.

### 지혜로운 세헤라자데가 들려주는 바다 모험담

바다를 담은 음악 중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작품으로는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가 있다. 생생한 묘사가 돋보이는 명곡으로, 작곡가 자신의 풍부한 항해 경험이 반영됐다.

18살 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사관후보생으로서 세계를 항해하며 바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림스키코르사코프는 그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 잘 알았다. 그가 <아라비안나이트>를 바탕으로 한 교향악적 모음곡 <세헤라자데>를 작곡하면서 바다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1악장과 4악장에 넣은 것도 바다가 매우 친숙했기 때문이리라.

작품 제목 <세헤라자데>는 아라비아어로 쓰인 설화집 <아라비안나이트>의 여주인공 이름이다. 그는 포악한 술탄 샤리아르에게 1,001일 동안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기를 모면한 지혜로운



여인이다. 아내에게서 한 번 배신당한 이후 ‘여자인 믿을 수 없고 부정한 존재’라 생각한 술탄은 어떤 여자든 결혼 다음날 죽였는데, 그때 한 대신의 영리한 딸 세헤라자데가 자청해 술탄과 결혼한 후 매일 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 목숨을 부지했다. 뿐만 아니라 세헤라자데는 마침내 왕의 사랑을 받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세헤라자데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전 4악장으로 구성된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악 모음곡 〈세헤라자데〉에 담겼다. 그중 1악장 ‘바다와 신드바드의 배’와 마지막 4악장 ‘바그다드의 축제-바다-난파-종곡’이 바다와 관련돼 있어 전곡에 걸쳐 바다의 모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술탄의 위협적인 음악으로 시작하는 1악장은 바이올린으로 표현된 세헤라자데의 주제에 이어 고요한 바다의 주제로 이어진다. 저음 현이 바다의 물결을 나타내듯 천천히 움직이는 사이 바이올린은 망망대해를 떠올리게 하는 장엄한 주제를 연주한다. 처음 바다의 주제는 고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웅장하게 변모하고 거대한 태양의 물결과 신드바드의 배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된다.

#### 교향악적 바다 스케치

같은 바다를 묘사한 작품이라고 해도 영감의 원천에 따라 성격이 조금 달라진다. 드뷔시의 경우가 그렇다.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는 립스키코르사코프처럼 직접적으로 바다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판화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를 통해 바다를 경험했고, 그림 같은 관현악곡 〈바다〉를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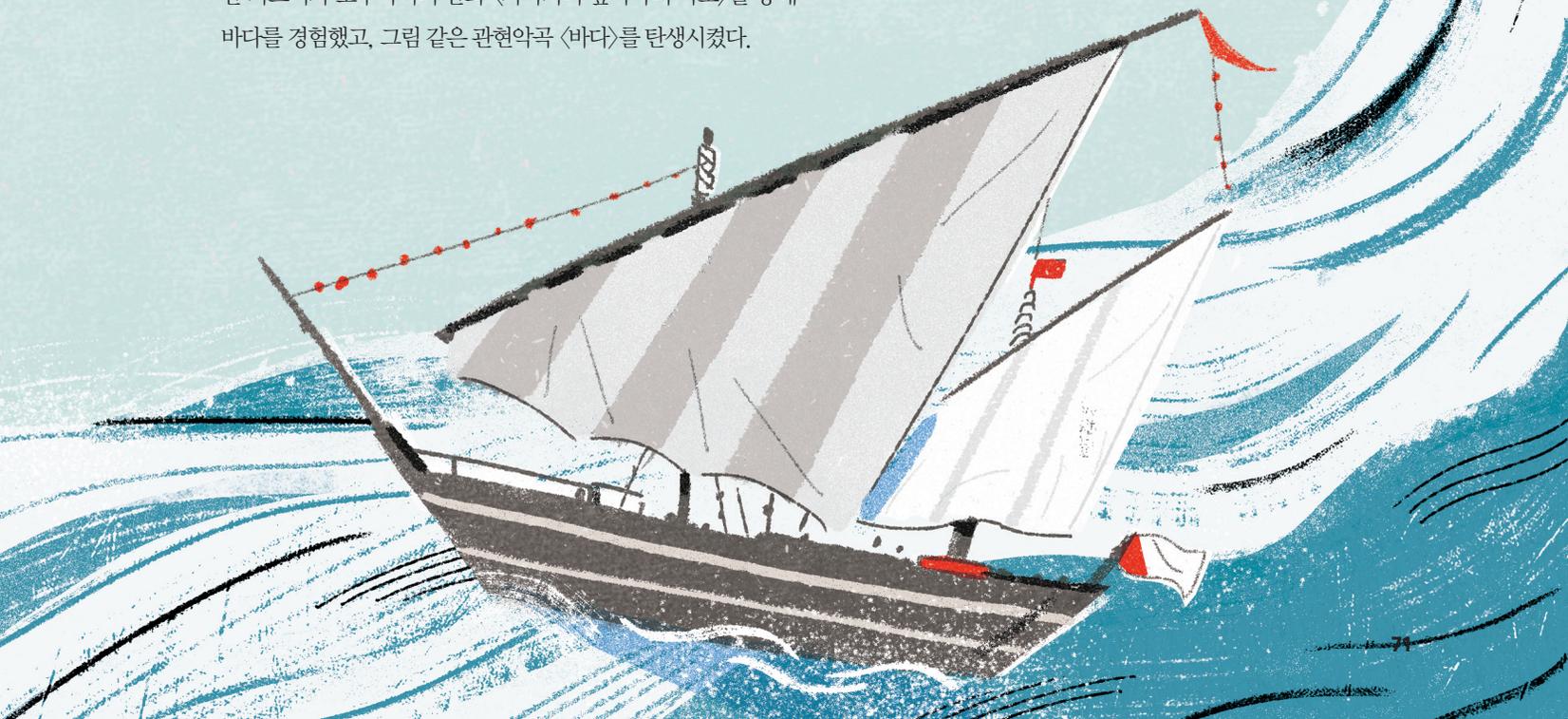
드뷔시는 이 곡을 ‘교향악적 스케치’라고 불렀다. 호쿠사이의 판화에서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때때로 모네의 인상주의 회화를 연상시키기도 하기에 ‘교향시’보다 ‘교향악적 스케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 이 곡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모습은 ‘바다 위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파도의 놀이’, ‘바람과 바다의 대화’라는 세 가지 스케치로 나타난다.

특히 제2곡 ‘파도의 놀이’는 파도치는 모습이 회화적인 이미지처럼 생생하게 표현되어 귀를 사로잡는다. 하얀 거품을 내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잉글리시 호른이라는 목관악기의 선율로 표현되고, 경쾌하게 움직이는 파도는 스페인 춤곡풍의 경쾌한 리듬으로 드러난다. 마치 가까이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세세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 더욱 생생하다. 제3곡 ‘바람과 바다의 대화’ 역시 바다의 거대한 에너지 흐름을 담은 명곡이다.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저음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 여러 목관악기들의 불연한 화음이 폭풍우의 시작을 알리면서 바람과 바다의 대화가 펼쳐진다. 거친 바람과 파도가 싸우는 듯한 폭풍우 장면도 있다.

이처럼 바다를 생생하게 담아낸 클래식 명곡들이 많다. 울여름 직접 바다에 가지 못한다면 바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영감 넘치는 음악을 들으며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글 최은규 서울대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부수석 및 기획홍보팀장을 역임했다. 월간 객석, 연합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음악평론가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부천필 등에서 클래식 음악을 강의하고 있다.

그림 다나





건축가 이광노를 기리며

## 엄격함과 로맨틱함 사이

지난 6월 25일, 건축가 이광노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주요 일간지에서는 ‘국회의사당을 설계한’ 건축가 이광노의 부고를 전하며, 일제강점기에 건축을 시작해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축의 역사가 된 그의 삶과 대표작들을 언급했다. 언론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대표작은 당연히 ‘국회의사당’이었지만, 여러 건축가와의 협업이었던 국회의사당보다 서울 곳곳에 남아 있는 다른 건물들에서 그의 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 1,2 남산에 자리한 육영재단 한국어린이회관(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3 PC 패널로 이루어진 입면.
- 4 중앙공무원 교육원(현 동국대 혜화관) 건물.
- 5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특징적인 공보부 텔레비전 방송국(현 남산빌딩) 건물.

일제강점기, 전후 복구, 그리고 경제 개발기의 건축가

건축가 이광노는 해방 직전인 1945년, 박길룡, 이상, 이천승, 김정수 등 일제강점기의 조선 건축가들이 졸업한 경성고등공업학교에 입학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방을 맞았다. 1947년 다시 서울대 건축공학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4학년 때 부산으로 내려가 교통부 시설국 건축과에서 근무했다. 건축가 이천승을 비롯한 당대 주요 건축가들과 함께 복구 및 재건공사 등에 참여했으며, 국군묘지 현상설계, 국군충훈탑 건립 현상설계, 유엔전우탑 건립 현상설계 등에 1등으로 당선되며 청년 건축가로 주목받았다.

전후에는 서울시 마스터플랜에 참여했으며, 1955년에는 무에건축연구소를 설립하고 한미재단시범주택단지(1955)를 비롯한 농업 및 축산업 관련 건물을 설계했다. 1960~70년대에는 공보부 텔레비전 방송국(1961), 중앙공무원 교육원(1962), 국회의사당(1968), 육영재단 한국어린이회관(1969)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 시설, 서울대 문리과대학(1961) 및 공과대학(1962), 한국과학기술원(1967) 등을 비롯한 교육시설, 서울대 의과대학 병원(1969) 등을 비롯한 의료시설을 설계했다. 전쟁과 복구라는 국가적 위기와



아픔을 겪었지만, 건축가로서 그는 스스로 ‘행운아’라 칭할 만큼 많은 기회를 가졌고, 그 기회들을 활용해 1960~70년대 한국의 대표 건축물들을 만들어냈다.<sup>1)</sup>

#### 표준과 자유, 기술과 예술, 엄격함과 로맨틱함 사이에서

이광노 건축가의 대표작으로는 ‘국회의사당’이 가장 먼저 언급되지만, 개인적으로 그의 대표작을 뽑으려면 육영재단 한국어린이회관(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을 들고 싶다. 건축은 기술과 예술이라는 그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업으로,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활용한 공업화 건축<sup>2)</sup>의 특징과 더불어 기상 레이더가 있는 상하부 2개의 돔과 상부의 회전전망대까지 갖추어 건축가 이광노의 이상을 드러낸다. 똑같이 생산된 PC 패널이 반복되는 입면은 잘 구축된 질서를 보여주고, 굴곡된 디자인으로 음영을 살린 PC 패널은 입면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국가 재건과 경제 개발의 시대였던 1960년대, 건축계에서는 모더니즘 양식의 유행과 함께 당시 하이테크 기술로 여겨졌던 커튼월, PC 공법 등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 건물은 이러한 당대의 경향을 잘 반영하는 동시에 남산에 지어진 한국 최초의 어린이회관이라는 상징성 역시 드러내고 있다.

이광노의 건축에서는 전반적으로 표준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sup>3)</sup> 중앙공무원 교육원(현 동국대 혜화관) 건물 역시 표준화와 모더니즘 양식이 잘 드러난다. 수직, 수평 요소의 비례감이 두드러진 파사드와 창문의 멀리언은 엄격함과 표준의 감각을 전달하는 동시에 중앙 입구 부분의 조형적 처리는 이 건물의 강직한 언어에 조금의 일탈을 허락한다. 중앙공무원 교육원 건물이 좀 더 ‘표준’과 ‘엄격함’에 가까운 건물이라면, 남산 언덕 위의 공보부 텔레비전 방송국(현 남산빌딩) 건물은 ‘자유’와 ‘낭만’에 가까운 건물이다. 이 건물 역시 기둥과 멀리언의 수직성이 강하게 다가오지만, 남산으로 올라가는 곡선도로에 면한 대지 형상에 맞춘 곡면 디자인이나 파라렐의 리듬감 있는 곡선 처리 등은 이광노의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는 낭만적 요소다. 기둥의 형태와 파라렐의 곡선 처리에서는 전통 한옥의 느낌이 잘 드러나는데, 이는 한국성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던 당시 건축계의 분위기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 오래된 것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기록

1960~70년대 한국 건축을 이끈 건축가 이광노는 후학들에게 건축 작업뿐 아니라 건축에 대한 기록도 남겨주었다. 건축가이자 교육자였던 이광노는 1985년 이후 무애건축연구실 대학원생들과 함께 가회동을 비롯하여 한옥마을, 농촌마을 등과 개항 이후의 근대 건축물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한국근대건축연구>, <미지정문화재 건축물 실측조사Ⅱ>라는 2권의 책<sup>4)</sup>을 펴냈다. 각 건물의 사진뿐 아니라 실측한 도면도 담고 있어 당시의 건축물을 연구하고 기억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당시 조사한 건물 중 상당수는 문화재가 되었고, 이후 철거된 건물들의 경우 그 건물을 기억하는 유일한 기록이 됐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복구기, 그리고 경제 개발기라는 그야말로 격동의 20세기를 겪은 건축가 이광노, 그는 국가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해 요구된 시대정신을 건축으로 표현하고 생산해냈다. 애정을 가지고 오래된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축가이자 교육자였다. 향년 90세의 나이, 3개의 건물과 2권의 책으로 그를 기억하며, 이제 저 하늘 위에서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한다.

글·사진 **이명연**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전공으로 석·박사를 취득했다. 한성부 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대한 박사논문으로 제6회 심원건축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도코모모, 도시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奉町>이 있다.

1) 2015년 월간미술에서 출간한 <무애 이광노 건축 작품집> 참조.  
 2) 1960년대 한국 건축의 주요 화두였던 공업화 건축은 공장에서 생산된 커튼월 혹은 PC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한 건축을 의미한다.  
 3) 이광노 건축가는 1966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한국표준센터의 설계를 담당하기도 했다.  
 4) 이 2권의 책은 합쳐져 2014년 공시에서 <한국근대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장 마크 발레 감독의 <와일드>

##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여행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아픈 기억의 편린이 길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단편적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 길은 마음의 지도가 된다. 압도적인 자연의 풍광과 그 아름다움을 기대했다면 솔직히 실망할 수도 있다. 사실 거대한 자연의 풍광을 제대로 담아내기만 했다면 관객들은 훨씬 더 쉽게 매혹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 <와일드> 속 자연은 아무런 표정이 없다. 그렇게 무심한 자연의 표정은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내면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 카메라가 향하는 시선은 물기 없이 갈라진 한 여인의 마음이다. 거친 자연은 그동안 그 여인이 살아온 길 자체가 되어, 걸음걸음 마음을 따른다.

### 길이 끝난 후 시작된 여행

영화 <와일드>는 절망과 방탕 속에 인생의 길이 끝났다고 느끼는 한 여성의 이야기다. 그는 미국 서부 4,200km를 도보로 종단한다.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는 더 큰 배낭을 짊어지고, 남자들도 완주하기 어렵다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하 PCT)을 걷고 또 걷는다. PCT란 멕시코 국경에서 시작해 캐나다 국경까지 미국 서부를 종단하는 도보여행 코스다. 거친 등산로와 눈 덮인 고산지대, 9개의 사막과 산맥, 평원과 화산지대까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연환경을 거쳐야 하기에 일명 '악마의 코스'로 불린다.

왜 그는 수행과 같은 이 여정 속으로 자신을 던진 것일까? 영화는 내내 세릴(리즈 위더스푼)이 수행에 가까운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교차해 보여준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일그러진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삶을 지탱해주던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실감에 빠진 그는 섹스와 마약으로 스스로의 삶을 후벼 판다. 한없이 너그러운 남편이 옆에 있고 여전히 돌봐야 할 어린 동생도 있지만 한 번 휘청대기 시작한 걸음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잊는다. 나락의 끝에 서서 문득 정신을 차린 세릴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극한의 도보여행인 PCT를 선택한다. 주술처럼 엄마가 이야기했던 '자랑스러운 딸'로 돌아가기 위해 연간 125명만이 평균 152일에 걸쳐서 완주한다는 그 코스를 94일 만에 완주한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사실 극한의 자연환경 속 혼자



떠나는 트레킹 여행이라는 소재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영화가 과연 관객을 매혹시킬 수 있을지 우려했지만, 영화의 제작자이자 주인공인 리즈 위더스푼은 스스로를 영화에 던지면서 그 우려를 잠재웠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세릴이 겪었을 여정을 가급적 그대로 겪고 재현하면서 온몸이 명투성이가 될 정도로 투혼을 발휘한 리즈 위더스푼의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는, 그동안 로맨틱 코미디에서 보여준 화사함과 감직함, 발랄함을 찾을 수 없다.

영화 속에서 세릴은 '몸이 그대를 거부하면 몸을 초월하라'라는 에밀리 디킨슨의 격언을 방명록에 적는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



덜는 걸음으로 몸을 괴롭혀 그 조연을 문신처럼 스스로의 마음에 새긴다. 신체적 고통을 훨씬 더 웃도는 마음의 소동을 겪으며 그는 양상하게 남은 자신의 마음과 대화한다. 그리고 그 거친 길 위에서 발톱까지 빠지는 고통을 겪으며 체현하는 것은 슬픔을 초월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다.

#### 그럼에도 다시 삶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엄마의 죽음이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내던질 만큼 대단한 걸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와일드>는 세릴 스트레이드라는 한 여인의 일탈과 슬픔의 무게 자체에 동감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의 삶 자체에 공감하지 못하는 관객이라도, 영화 <와일드>의 메시지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여인의 삶을 보여주고 그를 응원하는 영화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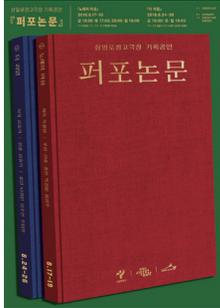
기 때문이다. 오히려 목직한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에 앞서 우리 두 발로 무거운 짐을 진 채 곳곳이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단단한 목소리로 주장한다. 세릴은 길이 끝난 곳에서 여행을 시작했지만, 여행이 끝난 후 그가 발견한 것은 힘들더라도 내 두 발로 딛고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이다. 영화에는 줄곧 엄마 바비(로라 딘)가 생전에 좋아했던 사이먼 앤 가펩클의 <엘 콘도르 파사>(철새는 날아가고)가 흐른다. 남미에 구전되던 민요에 가사를 붙인 노래다. 영화가 끝난 뒤엔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데, 주술처럼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 왠지 나도 용감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18

8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피포논문〉**

저자에게 논문을 수행할 수 있는 무대를 제안하여 연극을 이론화한 텍스트를 다시 연극으로 환원한다. 연극의 예술적 의미를 되찾고 동시에 학위를 인증하는 용도 외 논문의 다른 사용법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노래의 마음〉**

**일시** 8월 17일(금)~19일(일)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5시·8시,  
일 오후 6시

**〈더 리얼〉**

**일시** 8월 24일(금)~26일(일)  
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58-2150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남산창작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1

- 삼일로창고극장 대관공연  
라예송 작곡발표회  
〈흰 연기, 너머 II-밀실 노가다〉
-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전시  
〈이 연극의 제목은 없습니다〉(~9.22)
- 마당극패우금치 기획공연  
〈천강에 뜬 달〉(~8.5)

6

7

8

- 장애청소년 여름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 도담도담〉(7회차)  
\_경경희(다함께 불이고칠하고!찍고)
- 마당극패우금치 기획공연  
〈쪽빛 황혼〉
- 정동마루시리즈 〈청춘만발〉(~8.31)
- 뮤지컬 〈바람 : 위대한 쇼맨〉  
(~10.28)
- G. Donizetti 로만틱코메디 3D 오페라  
〈사랑의 묘약〉(~8.9)
- 서울문화재단국악당 기획공연 포커스  
〈가면회〉(~8.19)
- 전시 〈드가: 새로운 시각〉(~10.21)

13

14

15

- 장애청소년 여름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 도담도담〉(10회차)  
\_최윤정(수호동물 만들기)
- 예술의전당 어린이가족 페스티벌  
〈빅토리아의 100번째 생일〉(~8.26)
- 전시 〈지도예찬 - 조선지도 500년,  
공간·시간·인간의 이야기〉  
(~10.28)
- 광복절 기념행사
- 전시 〈날씨의 맛〉(~8.15)
- SeMA 개관 30주년 기념전  
〈디지털 프롬나드〉(~8.15)
- 영산아트홀 2018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5주년 기념  
〈이럴때 이런음악〉(~8.15)
- 전시 〈추고받는 모서리\_오종의  
공간프로젝트〉(~8.15)

20

21

22

- 장애청소년 여름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 도담도담〉(12회차)  
\_김려원(추억의 풀놀이야)
- 〈프로젝트 도담도담〉 기획전시(~8.28)
- 〈서울 상상력발전소프로젝트〉  
휘경공업고등학교 연계 미디어제작  
워크숍 개최(1)
- 연극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10.21)
- 전시 〈이은경 : 새콤달콤한 행복〉(~8.22)

27

28

29

- 〈서울 상상력발전소프로젝트〉  
휘경공업고등학교 연계 미디어제작  
워크숍 개최(2)
- 제6회 국악관현악축제
- 전시 〈픽셀의 언어〉(~8.14)
- 심산 예술 영화관  
〈해설이 있는 아트 시네마〉(~8.28)

**민간인간**

- 국악콘서트 〈다담〉 여름 프로그램 3  
\_효리네민박의 호기심쟁이



THU

2

- 2018 MEET <문래 커뮤니티케이션>
- 장애청소년 여름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 도담도담>(6회차) \_이현주(오물조물 남남남)
- 전시 <코코 카피탄 : Is It Tomorrow Yet?>(~2019.1.27)

FRI

3

- 장애청소년 여름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 도담도담>(6회차) \_이현주(오물조물 남남남)
- 공연 <깊은숨廊사랑>(~8.4)
- 뮤지컬 익스트림 퍼포먼스 <FLYING : 플라잉>(~8.26)

SAT

4

- 2018 서울예술치유허브 <예술X힐링 아지트>(~11.24)
- 2018 위클래스 썸머 아카데미 콘서트
- 전시 <황금문명 엘도라도 - 신비의 보물을 찾아서>(~10.28)

SUN

5

- 전시 <반복적 이사(已事)>(~8.5)
- 연극 <내가 기다린 여자>(~8.5)
- 연극 <베니스의 선악곡>(~8.5)
- 전시 <사천왕사 녹유신장상, 백년의 기다림>(~8.5)
- 전시 <인생사진관2>(~8.5)

9

- 전시 <출가외인 : 무용(無用)의 레이어>(~8.25)
- 장애청소년 여름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 도담도담>(8회차) \_정경희(다함께 불이고!칠하고!찍고!)

10

- 2018 MEET <문-Layer> 2차 전시 (~8.10)
- 장애청소년 여름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 도담도담>(9회차) \_최윤정(수호동물 만들기)
- Club M <La Belle Epoque : 새로운 시대>
- <시티 썸머 페스티벌 낭만식당>(~8.12)
- 전시 <슈가플래닛>(~2019.4.7)

11

- 2018 서울국제안무워크숍(Seoul International Choreography Workshop)(~8.17)
- 한마음 살림장
- 2018 그랜드 썸머클래식 (Grand Summer Classics)
- 뮤지컬 <파리넬리>(~8.19)
- 전시 <HIPHOP:ON MY WAY>(~9.8)

12

- 변진 튜바 귀국 독주회
- 뮤지컬 <도그파이트-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룻밤>(~8.12)
- 연극 <춘향>(~8.12)
-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평강공주와 온달바보>(~8.12)

16

-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OES의 베토벤 시리즈 I (2018-2020)
- 국립합창단 기획공연 <한민족합창축제>

17

-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퍼포논문>\_<노래의 마음>(~8.19)
- 2018 MEET <VANDI의 세계 민속악기 여행>
- 장애청소년 여름방학 문화예술프로그램 <프로젝트 도담도담>(11회차) \_길려원(추억의 풀놀이야)

18

- 서울시합창단 제120회 특별연주회 <신나는 콘서트>
- 제26회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Great KOREA>
- 우리아이 감성체험 공연 <요로케조로케>(~8.18)

19

- 전시 <몸 주제:일부러 불편하게> (~8.19)
- 전시 <복록수>(~8.19)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8.19)
- 전시 <아크람 자타리 : 사진에 저항하다>(~8.19)
- 전시 <책스홍의 사물탐구놀이>(~8.19)
- 한강몽땅 여름축제(~8.19)

23

- 전시 <팀보타 전시회>(~8.23)
- 예술의전당 어린이가족 페스티벌 <피노키오>(~9.2)

24

-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퍼포논문>\_<더 리얼>(~8.26)
- 2018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선정작 <당신이 그리운 풍경 속으로 멀어져 간다는 것은>(~8.30)
- 전시 <풍경, 사색과 마주하다>(~8.24)

25

- 한마음 살림장
- 토요일은 청이출아
- 정동극장 창작ing 시리즈 <판소리 오셀로>(~9.22)

26

-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8.26)
- 전시 <brick 포 키즈 (Brick for Kids)>(~8.26)
- 연극 <비오는 날의 인터뷰>(~8.26)
- 전시 <세젤에 썸머>(~8.26)
- 전시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 Geek Zone>(~8.26)
- 뮤지컬 <웃는 남자>(~8.26)

30

- 삼일로창고극장 대관공연 <어바디오브씨어터 <43kg만큼의 상아>>(~9.2)
- 레드폴의 발룬박스(~8.30)

31

- 2018 MEET<문래 타래>(~9.1)
-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비올리스트 임요섭 독주회>
- 어린이 공연 <노리아 학교가자> (~8.31)
- 전시 <잡보! 아프리카>(~8.31)
- 뮤지컬 <오늘 하루 맑음>(~9.1)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전시**  
**〈이 연극의 제목은 없습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의 모태가 된 극단 에저도의 1966년부터 1977년까지를 조명하는 아카이브 전시. 연출가 방태수가 소장한 자료를 통해 독재정권의 예술 검열 제도와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상 속에서도 끈을 놓지 않았던 연극실현과 예술운동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일시** ~9월 22일(토)  
 화~금 오후 1시~6시  
 (공연 있을 시 공연 시작 전까지  
 (주말 포함) 관람 가능)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갤러리  
**관람료** 무료  
**전시** 02-758-2130



**2018년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문래 커뮤니티케이션〉**

젬베 연주·공연 단체인 젬베콜라가 시민을 대상으로 월 1회 젬베 뮤지컬클래스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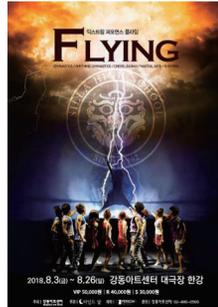
**일시** 8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문래예술공장 1층 스튜디오M30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깊은 숭례사랑〉**

우리의 전통소리, 문화의 원형을 복원하고 현대인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재소환하는 이희문컴퍼니가 독창적인 시각을 담아 오늘날 사라진 경기소리 문화의 원형을 재현한다.

**일시** 8월 3일(금)~4일(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2시·5시  
**장소** 서촌공간 서로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730-2502,  
<https://spaceseoro.com>



**뮤지컬 익스트림 퍼포먼스**  
**〈FLYING : 플라잉〉**

고대 화랑과 도깨비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리듬체조, 치어리딩, 마살아츠, 비보잉이 접목된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년버벌 퍼포먼스로 선보인다.

**일시** 8월 3일(금)~26일(일)  
 화~일 오전 11시·오후 2시,  
 (4, 11일 오전 11시·오후 2시·5시 공연,  
 월 공연 없음)  
**장소**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관람료** VIP 5만 원,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440-0500



**2018 서울예술치유허브**  
**〈예술 X 힐링 아지트〉**

다양한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생각을 나누는, 청소년을 위한 힐링공간이다. 예술가와 함께 일상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며 예술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일시** 8월 4일(토)~11월 24일(토)  
 매주 토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3층 미술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전시 〈황금문명 옐도라도**  
**- 신비의 보물을 찾아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콜롬비아 전시로, 화려한 공예품을 만날 수 있다. 고대 원주민의 인간과 자연의 혼연일체 사상을 이해하고 콜롬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일시** 8월 4일(토)~10월 28일(일)  
 월·화·목·금  
 오전 10시~오후 6시,  
 수·토 오전 10시~오후 9시,  
 일·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성인 9천 원, 중·고·대학생 8천 원,  
 초등학생 7천 원, 유아·노약자 5천 원  
**문의** 1688-0361

05 SUN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내가 기다린 여자〉**

추운 겨울의 독산역 입구, 백마 탄 천사 같은 여자와 평범한 한 남자가 운명처럼 마주친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데...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방향성의 부재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 ~8월 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6시, 일 오후 3시  
(4일 오후 3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선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10-6638-1393

07 TUE



**정동마루시리즈 〈청춘만발〉**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젊은 국악인들의 재기발랄한 무대가 펼쳐진다. 가야금, 해금 듀오 밴드 '둘다', 이야기와 소리를 놀이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소리바라기' 등 15개 단체들이 그들만의 음악으로 그려낸 청춘들의 자화상을 만나보자.

**일시** 8월 7일(화)~31일(금)  
화~금 오후 8시(15일 공연 없음)

**장소** 정동극장 정동마루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02-751-1500



**뮤지컬 〈바넘 : 위대한 쇼맨〉**

휴 잭맨 주연의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의 원작, 1980년 성공적인 초연 이후 현재까지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바넘 : 위대한 쇼맨〉의 국내 초연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일시** 8월 7일(화)~10월 28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30분,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30분  
(월 공연 없음)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77-3363

08 WED



**서울문화재단 기획공연 포커스**  
**〈가면희〉**

전통 탈춤의 각양각색 매력을 선보인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각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한국 전통 탈춤 '양주별산대놀이, 봉산탈춤, 강령탈춤, 북청사자놀이, 고성오광대' 등 5개의 보존회 공연과 7인의 젊은 탈꾼들의 힘 있는 독무가 펼쳐진다.

**일시** 8월 8일(수)~19일(일)  
수~금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문화재단국악당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02-3210-7005



**전시 〈드가: 새로운 시각〉**

에드가 드가의 예술 인생 30년을 담은 아시아 최초의 전시다.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등 대표작 100여 점을 선보인다. 드가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일시** 8월 8일(수)~10월 21일(일)  
오전 10시~오후 8시  
(수 오전 10시~오후 9시,  
8월 8일 오전 10시~오후 1시,  
휴관일 없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2천 원, 어린이 1만 원  
**문의** 02-399-1152

09 THU



**2018 갤러리 맺음 후원 전시**  
**〈출가외인 : 무용(無用)의 레이어〉**

일상을 유지시키는 먹는 행위에 관한 고찰을 설치작품과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개개인의 프레임(환경적 요인)을 실험하는 김진아 작가의 관객 참여형 전시.

**일시** 8월 9일(목)~25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10 FRI



**2018년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문-Layer> 2차 전시**

시간을 내 전시회를 찾기 힘든 현대인들을 위해 문래동의 숲집 8곳에서 모니터, 빔 프로젝터 등으로 미술작품을 전시한다.

**일시** ~8월 10일(금)  
**장소** 채윤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28-1) 외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Club M <La Belle Epoque : 새로운 시대>**

클래식 음악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는 실내악 연주단체 Club M. 그들의 두 번째 정기공연이다.

**일시** 8월 10일(금)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588-8654



**공연 <시티 썸머 페스티벌 (City Summer Festival) 낭만식당>**

한여름 밤 도심 속 뮤직 페스티벌. 바쁜 일상 속 여유와 휴식, 위로를 전한다. 8월 10일에는 노리플라이X멜로망스, 11일에는 정승환을 만날 수 있으며, 페스티벌 마지막 날인 12일엔 이루마의 공연이 펼쳐진다.

**일시** 8월 10일(금)~12일(일)  
금 오후 8시, 토 오후 7시, 일 오후 5시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VIP석 9만 9천 원, R석 7만 7천 원, S석 5만 5천 원, A석 3만 3천 원  
**문의** 1577-5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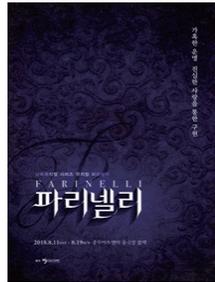
11 SAT



**2018 서울국제안무워크숍**

제2회 서울국제안무워크숍에서는 컨템포러리 댄스와 퍼포먼스 아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국내외 안무가 8인을 초청해 동시대 감각을 키우고 최신 창작 경향에 대한 담론을 형성한다. 워크숍 외에도 무용예술 및 안무에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시** 8월 11일(토)~17일(금)  
**장소** 서울무용센터  
**참가비** 안무워크숍 1만 5천원~5만 원(개별 상이), 미니워크숍 및 기타 프로그램 무료  
**문의** 02-304-0094,  
[www.facebook.com/SICWSICW](http://www.facebook.com/SICWSICW)



**뮤지컬 <파리넬리>**

기존 공연의 뒷이야기를 낭독 뮤지컬로 선보이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다. 브로스키 형제의 뒷이야기, 그리고 '파리넬리', '리카르도'. 단 2명의 배우와 1대의 피아노가 무대를 채운다.

**일시** 8월 11일(토)~19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15일 오후 2시·6시 공연)  
**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588-7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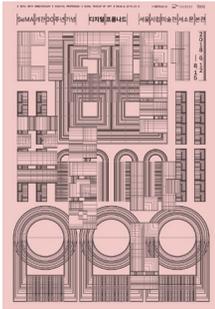
15 WED



**전시 <날씨의 맛>**

일상 속의 날씨를 음미하고 날씨와 맺어온 역사와 미래에 대해 숙고하고자 기획된 전시다. 날씨에 대한 감각, 감수성 등을 생각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시** ~8월 15일(수)  
화~금 오전 10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2124-8800



### SeMA 개관 30주년 기념전 〈디지털 프롬나드〉

서울시립미술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디지털 프롬나드〉전을 선보인다. 미술관 소장품 4,700여 점 중에서 '자연과 산책'을 키워드로 30점을 선별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젊은 작가들의 뉴커미션 작업 10점을 한자리에서 보어줌으로써 미술·미술관과 소장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 몰입, 참여를 이끌어낸다.

**일시** ~8월 15일(수)  
화~금 오전 10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  
뮤지엄나이트(매월 둘째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전 10시~오후 10시  
(매주 월 휴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2124-8938



###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피포논문〉

매년 무수히 배출되는 연극 관련 졸업논문 중 주목한다. 그 저자에게 논문을 수행할 수 있는 무대를 제안하여 연극을 이론화한 텍스트를 다시 연극으로 환원한다. 연극의 예술적 의미를 되찾는 동시에 학위를 인증하는 용도 외 논문의 다른 사용법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노래의 마음〉(저자 목정원, 구성·연출·출연 목정원, 최정우)  
**일시** 8월 17일(금)~19일(일)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5시·8시, 일 오후 6시  
〈더 리얼〉(저자·연출 김슬기, 출연 나경민, 성수연, 우범진)  
**일시** 8월 24일(금)~26일(일)  
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장소**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58-2150



### 2018년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VANDI의 세계 민속악기 여행〉

20여 가지의 다양한 외국 전통악기들과 재활용 악기들로 연주하는 월드뮤직 공연이다.

**일시** 8월 17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문래동 로데오거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 전시 〈아크람 자타리 : 사진에 저항하다〉

레바논 출신의 사진작가 아크람 자타리의 개인전으로 작가의 고찰과 주관적 해석을 시각화해 독창적인 전시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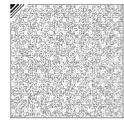
**일시** ~8월 19일(일)  
월~목·일 오전 10시~오후 6시,  
금·토 오전 10시~오후 9시  
(오후 6시~오후 9시  
야간개장 무료 관람)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람료** 4천 원  
**문의** 02-3701-9500



### 2018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무대 위에 펼쳐지는 따뜻한 판타지동화 연극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꿈과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현대인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내민다.

**일시** 8월 21일(화)~10월 21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02-744-4033



**정동극장 창작ing 시리즈**  
**<판소리 오셀로>**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내면의 의심과 질투, 그로 인한 파국을 이야기한다. 널리 알려진 명작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다면, 그 방법이 판소리라면, 어떤 느낌일까? 정동극장과 희비쌍곡선이 함께 만드는 <판소리 오셀로>는 동양의 나라 조선, 그것도 낮은 신분 이야기꾼 기녀가 들려주는, 높은 신분의 이방인들 이야기다.

**일시** 8월 25일(토)~9월 22일(토)  
 화~토 오후 8시, 일 오후 3시  
 (매주 월, 9월 7~9일 공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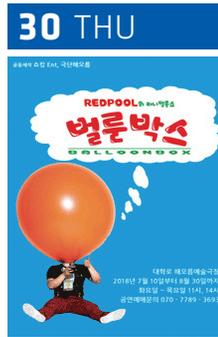
**장소** 정동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751-1500



**전시 <브릭 포 키즈>(Brick for Kids)**

상상력으로 가득한 대형 놀이터. 수백만 개의 브릭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뛰어난 상상력을 통해 나만의 개성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도록 만든다. 대형블록으로 원하는 모양의 집을 만들 수 있고, 바퀴블록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어 직접 타고 놀 수 있는 체험존, 마인크래프트를 체험하고 전시하는 공간, 블록을 이용해 만들어진 명화나 디오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일시** ~8월 2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 휴관)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관람료** 성인 5천 원, 어린이 (36개월~초등학생) 1만 5천 원  
**문의** 1577-3363



**레드풀의 벌룬박스**

벌룬 아티스트 '레드풀'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진행되는 벌룬 퍼포먼스. 개그적인 요소와 미술적인 효과들을 결합해 만든 멀티공연으로 신나는 음악과 재미있는 율동이 펼쳐진다.

**일시** ~8월 30일(목)  
 화~목 오전 11시,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해오름 예술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070-7789-3693



**2018년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적작 <문래 타래>**

현장 공연 예술가 6~8팀이 함께 만든 뮤직비디오, 음원, 홍보영상 등의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를 전시, 공연으로 선보인다.

**일시** 8월 31일(금)~9월 1일(토)  
**장소** 문래예술공장 1층 스튜디오M30  
**관람료** 1만 원  
**문의** 02-2676-4332



**뮤지컬 <오늘 하루 맑음>**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거리를 재미와 감동으로 풀어낸 청소년 창작 뮤지컬이다.

**일시** 8월 31일(금)~9월 1일(토)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5천 원  
**문의** 02-399-1753

# MEET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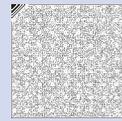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 문래예술공장 GS SHOP

문의  
문래예술공장  
02.2676.4300



2018.  
07.05.  
-  
12.09.

강은구  
강이김  
김두희  
김보배  
김정현  
남작한 파동  
남나들이  
노정주  
노제현  
디앤와이 컴퍼니  
락버스  
박주운  
VANDI  
송호철  
신이피  
신정희  
언메이크 랩  
임아롱  
예병현  
음악그룹 the 룬  
이록현  
이미지사운드베이커리  
아산  
이정주  
임종은  
장일호  
정호윤  
제너럴 쿤스트  
젼베클라  
주말극장  
채효진  
최라운  
최혜련  
콧핏 스튜디오  
프로젝트 외(WAE)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http://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 독자 엽서

**7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의견들 보내주시는 분들을 좋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대학로에 놀러 갔다가 서울연극센터에서 발견했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① 예술적 상담소: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있어서 유용했다.  
② 화제 2: 남북정상회담과 '미술정치': 역사적 순간을 예술로 해석한 시도가 신선하다고 느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유익하고 고품질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문화 예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사 부탁드립니다.

\* 의견: [문화+서울]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http://www.sfac.or.kr/munhwaplusseoul)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간지는 주은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있습니다. \*  
유행할 여세를 소개한 전시 기사가 흥미로운데 더 다양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ㅠ.

### 이지하 님(서울시 양천구)

-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대학로에 놀러 갔다가 서울연극센터에서 발견했습니다.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① 예술적 상담소: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 유용했습니다.  
② 화제 2: 남북정상회담과 미술정치, 역사적 순간을 예술로 해석한 시도가 신선했습니다.
-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유익하고 고품질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유행할 여세를 소개한 전시 기사가 흥미로운데 더 다양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편집 후기

당신 덕분에 '다' 즐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만큼  
오래도록 당신을 기억할게요.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장

아쉬운 이별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방유경** 서울문화재단 미디어팀

1994년 여름의 기록을 깨고  
역사에 남을 수 있을까요.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주요 배포처**

북촌에서의 즐거운 만남,  
공예작가와와 반가운 만남.  
늘 즐겁고 반가운 서울문화재단.  
(뒷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주철환 대표, 손상우 작가, 최종환 작가,  
김명식 주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대학로 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종량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 『퍼포논문』

「노래의 마음」

2018.

8.17-19

시간 금 19:30

토 17:00, 20:00

일 18:00

저자 목정원

구성·연출·출연 목정원 최정우

「더 리얼」

2018.

8.24-26

시간 금 19:30

토·일 15:00

저자·연출 김슬기

출연 김슬기 나경민

성수연 우범진

삼일로창고극장 기획공연

# 퍼포논문

“논문, 공연이 되다”

② 더 리얼

저자·연출 김슬기 | 출연 김슬기 나경민 성수연 우범진

8.24-26

① 노래의 마음

저자 목정원 | 구성·연출·출연 목정원 최정우

8.17-19

